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xiet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Online Class Satisfaction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이혜정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

지도교수 김진모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이혜정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원장           나승일           (인)

부위원장           김진모           (인)

위원           이찬           (인)

# 국문초록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년

이 혜 정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구명, 둘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구명이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특성화고 학생 전체이며 코로나19 이후 1년 이상 원격수업을 경험한 2, 3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의 특성화고를 지역별, 계열별 학교 수 비율에 따라 나누고 30개교를 선정하여, 학생 600명을 표본 집단으로 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학교방문과 우편을 통해 이루어졌다. 총 580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을 제외하고, 554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도구는 모두 8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취업준비행동 23문항, 불안은 20문항, 교사학생관계는 21문항, 원격수업만족도는 15문항으로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위요인인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 가구의 월 수입을 묻는 3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4문항이 포함되었다. 이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 가구의 월 수입에 각각 점수를 부여하고 표준화한 뒤 합산하여 단일 척도로 사용하였다. 도구는 특성화고 교사 3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직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추리통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p > .05$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081$ ,  $p < .05$ ). 교사학생관계도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54$ ,  $p < .001$ ). 원격수업만족도 역시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eta = .281$ ,  $p < .001$ ). 둘째, 원격수업만족도는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474$ ). 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0113)와 교사학생관계(.1053)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분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안을 낮추는 심리지원과 더불어, 원격수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직접 영향을 미치며, 또한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또 학생이 교사를 친밀하게 느끼고 유능하다고 여길수록 원격수업만족도를 경유해 취업준비행동이 더 활발해짐을 의미한다.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원격수업만족도 가운데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특히 불안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취업준비행동에 간접적인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성화고에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특히 커지고 있다. 원격수업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수업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동시에 불안을 낮추는 노력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격수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동기와 몰입 및 원격수업 설계와 실행 등 원격수업과 관련한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적인 수업만족도의 선행변인과는 다른 변인을 탐색해야 한다. 둘째, 이 연구의 독립변인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나 자녀의 개인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모의 지지나 양육태도 등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또한 원격수업이 보편적인 정규수업으로 진행되면서,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된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부모 지지와 같은 보다 폭넓은 가정변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일한 수업을 대상으로 한 대면,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 차이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업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유연화해 원격수업을 고도화한 마이스터고 학생들과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의 활용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원격수업만족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격 실습수업의 실제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원격수업이 정규교육으로 제공되는 만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기와 인터넷,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교육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비대면 상황에서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특성화고 학생, 취업준비행동,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원격수업만족도

**학 번** : 2016-28116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6
3. 연구가설 .....	6
4. 용어의 정의 .....	7
II. 이론적 배경 .....	11
1.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발달 .....	11
2. 취업준비행동 .....	20
3.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원격수업만족도 .....	32
4. 변인 간의 관계 .....	61
III. 연구 방법 .....	79
1. 연구모형 .....	79
2. 연구대상 .....	80
3. 측정도구 .....	83
4. 자료수집 .....	90
5. 자료분석 .....	92

IV. 연구결과 및 논의 .....	97
1. 연구변인 일반통계량 .....	97
2.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영향관계 .....	105
3.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	107
4. 논의 .....	112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17
1. 요약 .....	117
2. 결론 .....	119
3. 제언 .....	121
 참고문헌 .....	 127
부록 .....	165
Abstract .....	175

## 표 목 차

〈표 II-1〉 2021학년도 직업계고 현황 .....	12
〈표 II-2〉 직업계고 교과군별 학과 수 현황 (2020학년도 입학생 기준) .....	12
〈표 II-3〉 직업계고 교과운영 현황 .....	14
〈표 II-4〉 직업계고 학년별 · 과목군별 평균 이수 단위 .....	15
〈표 II-5〉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연도별 진로 현황 .....	19
〈표 II-6〉 학자별 취업준비행동의 정의 .....	22
〈표 II-7〉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 및 측정도구 .....	26
〈표 II-8〉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	31
〈표 II-9〉 불안의 하위요인 및 측정도구 .....	37
〈표 II-10〉 교사학생관계의 하위요인 및 측정도구 .....	47
〈표 II-11〉 대면교육과 원격교육의 특성 .....	49
〈표 II-12〉 원격수업 유형 .....	50
〈표 II-13〉 원격수업만족도 하위요인 및 측정도구 .....	59
〈표 II-14〉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	63
〈표 II-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	65
〈표 II-16〉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	66
〈표 II-17〉 원격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	68
〈표 II-18〉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	70
〈표 II-1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	73

<표 II-20>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	75
<표 III-1> 2020학년도 전국 특성화고 학년별 학생 수 .....	80
<표 III-2> 측정도구(설문지) 구성 .....	84
<표 III-3> 취업준비행동의 내적일치도 계수 .....	85
<표 III-4> 불안의 내적일치도 계수 .....	86
<표 III-5> 교사학생관계의 내적일치도 계수 .....	88
<표 III-6> 원격수업만족도의 내적일치도 계수 .....	90
<표 III-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91
<표 III-8> 연구가설별 통계기법 .....	92
<표 III-9> 피어슨 상관계수의 상관 정도 판단기준 .....	94
<표 IV-1> 연구 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	98
<표 IV-2> 학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	98
<표 IV-3>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	99
<표 IV-4> 학교소재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	99
<표 IV-5> 학교계열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	100
<표 IV-6> 통제변인 및 취업준비행동, 원격수업만족도,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의 상관관계 .....	101
<표 IV-7>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진단 .....	102
<표 IV-8>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회귀분석 .....	106
<표 IV-9>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	108
<표 IV-10>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유의수준 .....	108

<표 IV-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유의수준 .....	109
<표 IV-12>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유의수준 .....	110
<표 IV-13>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	111

## 그림 목 차

[그림 II-1]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의 관계	20
[그림 III-1] 연구의 모형	79
[그림 III-2] 층화군집표집 과정	83
[그림 III-3]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 개념도	94
[그림 IV-1] 취업준비행동의 정규성 검증(P-P plot)	103
[그림 IV-2] 취업준비행동의 등분산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104
[그림 IV-3]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11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2009년 16.7%에 머물던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2017년 50.6%까지 올라섰다. 교육부는 2020년 마련된 새로운 취업률 산정기준에 따라 2021년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55.4%로 발표하였다(교육부, 2021c). 새로운 취업률은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제외인정자)×100>의 산식으로 계산되는데 모수에 진학자를 포함할 경우, 취업률은 20%대로 떨어진다. 직업계고 졸업생 10명 가운데 실제 취업을 하는 학생은 두 세 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6학년도 2.8% 수준이던 직업계고의 입학정원 미달률도 2018학년도에는 11.6%까지 치솟았다. 2021학년도에는 서울에서만 특성화고 70곳 가운데 49곳이 미달되었고, 전체 모집인원 12,816명 가운데 2천여 명을 채우지 못해, 미달율은 16.1%를 기록하였다. 직업계고의 인기가 시들해진 가장 큰 원인은 학령인구의 감소로 분석된다. 2011년 11만 6,675명이던 서울시내 중학교 졸업생 수는 2021년 6만 7,623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고졸 일자리 자체가 줄면서 특성화고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경제연구원(2021)에 따르면, 2020년의 경제활동인구는 2,801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4천 명이 감소하였다. 이 가운데 고졸 일자리가 가장 많이 줄면서, 대졸 이상 실업자는 1천 명 감소했지만, 고졸 실업자는 오히려 3만 2천 명이 늘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21)의 조사에서도 특성화고 졸업예정자 10명 가운데 7명(69%)은 취업처가 줄었다고 답하였다. 이 때문에 취업 대신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특성화고 학생의 상당수는 사실상 취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 준비를 준비해 나가는지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취업준비 행동을 다룬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이제경, 2004; 이영민, 이수영, 2010; 윤명희, 유형숙, 2010; 김은정, 2011; 한예정, 2014; 김현정, 2016; 윤미숙, 2017). 그러나 Ginzberg(1972)는 고교 시기를 진로결정의 중요한 시기로 보았으며,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미래의 직업을 구체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졸업과 동시에 직업사회로 진출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고등학교가 마지막 학교 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개인요인과 가정요인, 그리고 학교요인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원격수업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첫째 개인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등 개인의 일반적 특성과 전공 선택 동기, 직업 가치관, 진로결정수준, 취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다(윤미숙, 2017). 개인의 진로발달 변인과 관련된 입학동기, 취업경험, 불안,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등도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장현진, 이지혜, 2012; 이쌍철, 2013; 안선영, 김희진, 2012). 이 가운데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이나 원격수업만족도와 관계에 있어 그 연구 수는 적지만, 코로나19 이후 많은 언론이 불안을 중요한 사회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이테일리, 2020.04.08.). 팬데믹 상황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불안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2021)는 취업난 속에 청년 대부분이 우울증의 전 단계까지 몰렸다고 보고한 바 있다. 거리두기로 인해 교사, 친구와 같은 사회관계망이 약해지고, 수학여행이나 체험활동 같은 학교 공동체 활동은 사라지다시피 했다. 학년이

바뀌도록 같은 반 친구의 이름조차 외우지 못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고립에서 오는 불안에 취업불안까지 덮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학생들의 불안한 심리는 취업준비행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가정요인이다. 이 역시 진로 관련 변인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가정의 진로지지, 가정의 경제 수준, 부모의 동거 여부, 부모의 최종학력 등이 주로 다루어져 왔다(조규형, 2014). 직업계고 학생들의 가정 경제 수준은 일반고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한국교육개발원, 2009), 문제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학습격차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부모의 경제 수준이나 최종학력 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로 정의될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가 선택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교육적 개입도 어렵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원격수업만족도, 취업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를 확인한다면, 사회와 국가의 제도적 개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때문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른 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취업준비행동과 관련한 조직수준의 변인으로 윤미숙(2017)은 대학소재지, 대학의 규모, 취업률, 전공만족도, 학과 교수만족도, 대학의 취업지원역량을 언급하였다. 이를 고교 수준의 학교요인으로 살펴보면, 학교계열, 학교의 취업지원, 교사와의 관계, 학교 만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조규형, 2014; 오영석, 조인식, 2015; 홍성표, 2016). 이 가운데 원격수업, 즉 비대면 교육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교사와 학생 간의 정서적 관계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고립과 소외감, 그리고 불안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변인으로 교사와의 관계 변인은 유의미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정부는 모두 3차례의 개학 연기 끝에 2020년 4월 9일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대해 단계적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였다(교육부, 2020b). 특성화고에도 원격수업이 전면 도입되었다. 불안과 우려 속에 특성화고의 원격교육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2021b)는 2022년 특성화고에 학점제를 본격 도입하고, 원격학습과 대면학습을 혼합해 블렌디드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원격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특별히 특성화고의 원격수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실습 중심의 전문교과 수업 때문이다. NCS 기반의 2015 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특성화고에는 전공과목, 즉, 전문교과의 단위 수가 증가하고 실습의 비중이 높아졌다. 전문교과는 실습 위주의 실무과목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같은 면대면 실습교육도 계속 확산되어 왔다(정은진, 김남희, 2020). 그러나 원격 실습수업은 컴퓨터 등을 이용해 기자재를 간접 체험하는 수준에 그치는 데다,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불가능하다(안재영 외, 2020). 선행연구들은 원격수업으로는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실습수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정현철, 윤현수, 2020; 이희승, 2020; 정숙진, 신영준, 2020; 이용섭, 2020; 모주순, 함형인, 2021), 학생들의 직무능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직무교육을 통해,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파악하고 직업 세계를 가늠하지 못한다면, 희망분야에 대한 취업계획과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특성화고의 원격수업과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이후, 초중고교와 대학의 원격수업을 다룬 연구들이 봇물을 이루는 데 반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코로나19 이전의 원격수업 연구는 주로 사이버대학의 수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장은정 외, 2010; 권영중, 최성용, 2017),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보편교육으로 시행되면서 중고교와 일반 대학으로 연구가 확대되었다(최형미, 이동국, 2020; 임은정, 권수미, 2020; 김미진, 2021; 이쌍철, 김정아, 2020; 계보경 외, 2020; 유민우, 2020; 서혜선, 2020; 조보람, 2021; 강성배, 2021). 특성화고의 원격수업 연구는 주로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안재영 외, 2020; 김남희 외, 2020; 김성남, 김남희, 2020), 실습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전문교과의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 등 현장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는 원격수업 초기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Arcaro(1995)는 학교교육은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원격수업의 수요자인 학생들의 태도와 심리적 효용으로서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성화고의 교육과정이 대면 중심의 실습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방식의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를 파악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원격수업이 특성화고 전문교과 실습수업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낸다고 확인된 만큼, 원격수업만족도가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취업을 해야 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지금 시기 적절한 취업준비가 절실하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계획과 취업준비는 일반고 학생이나 대학생보다 훨씬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며,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면한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 각 선행변인들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적극적인 취업준비행동에 나서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영향관계를 구명한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구명한다.

## 3. 연구가설

이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특성화고 학생의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용어의 정의

### 가. 특성화고 학생

특성화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에 따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재학 중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확산을 겪으면서 원격수업을 경험하고,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 나.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은 취업을 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희망 직업세계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말한다(어윤경 외, 2010; 이영민, 이수영, 2010; 이계경, 이승구, 2008). 이 연구에서는 신경섭(2021)의 도구를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은 정보 수집 활동, 도구 구비 활동, 실천적 노력의 3가지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도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다. 불안

불안이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 걱정, 긴장 등의 특징을 갖는 불쾌한 정서로 주관적이며 자의적인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덕웅 외(1993)가 개발한 불안 척도의 하위요인인 상태불안과 특성불안 가운데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반응인 상태불안 점수로 불안 정도를 측정하였다. 상태불안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음을 의미한다.

#### 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사회구성원들의 역할과 행동을 그들의 직업과 교육수준, 수입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 기초하여 서열화하는 사회계층의 주된 개념이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 각각의 최종학력과 가구 월 수입을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은 학교 재학 연도로 환산하였는데, 초등학교 졸업 및 이하는 6점, 중학교 졸업 이하는 9점, 고등학교 졸업은 12점, 2년제와 4년제 대학 졸업은 16점, 대학원 이상은 18점을 부여하였다.

가구의 월 수입은 100만원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300만원 미만은 3점, 300만원~400만원은 4점, 400만원~500만원은 5점, 500만원~600만원은 6점, 600만원 이상은 7점을 부여하였다(백순근, 박경인, 2010).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3개 하위요인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표준화한 뒤 합산하여 하나의 측정변인으로 사용하였다(허아정, 2021; 김영도 외, 2021; Kraus 외, 2009; Cohen 외, 2006)

#### 마. 교사학생관계

교사학생관계는 학생이 해당 교사에 대해 친밀하고, 믿을 수 있으며, 유능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박경인, 2010). 이 연구에서 교사학생관계는 김희정(2012)의 도구로 측정하며, 하위요인은 이해공감, 친밀감, 신뢰감, 존중감, 유능감의 5개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교사학생관계를 좋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바. 원격수업만족도

원격수업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하며, 수업만족도는 수업이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원격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 비대면 수업 가운데 특별히 특성화고에서 시행되는 실습 중심의 전문교과 수업을 말한다. 따라서 원격수업만족도는 특성화고 전문교과 원격수업이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원격수업만족도는 상호작용과 콘텐츠, 시스템, 학습성과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김효겸(2021)의 척도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발달

#### 가. 특성화고의 개념 및 특성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종합고를 아울러 중등단계의 직업교육기관을 직업계고라고 통칭한다.

특성화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의해,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 정의된다(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탈 하이파이프, 2021). 산업계고와 전문계고 단계를 거쳐,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통합되었다. 특성화고는 현장중심의 실무교육을 통해 직무능력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교육목적을 두고 있다.

2009년 도입된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이다. 유망분야의 산업수요와 연계해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로 분류된다. 졸업 이후 우수기업에 취업할 수 있으며, 특기를 살린 군복무나 직장생활과 병행한 대학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종합고는 인문과정과 실업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직업사회에 진출하려는 학생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인문과정인 보통과와 실업과정인 전문과가 모두 개설된 고등학교이다. 실제 학교유형은 일반고등학교로 분류된다.

<표 II-1> 2021학년도 직업계교 현황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합고	합계
학교 수 (개)	463	52	70	584
학생 수 (명)	193,991	17,828	9,984	221,803

출처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털 HIFIVE 재구성

직업계고는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기존의 5개 계열에서 17개 교과군으로 개편되었다. 2020학년도 직업계교 교과군과 기준학과 현황은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직업계교 교과군별 학과 수 현황(2020학년도 입학생 기준)

교과(군)	기준학과	학과 수	비율(%)
경영·금융	경영·사무과	437	18.5
	재무·회계과		
	유통과		
	금융과		
	판매과		
보건·복지	보육과	75	3.2%
	사회복지과		
	보건간호과		
디자인·문화 콘텐츠	디자인과	199	8.4%
	문화콘텐츠과		
미용·관광·레저	미용과	131	5.6%
	관광·레저과		
음식 조리	조리·식음료과	105	4.5%
건설	토목과	129	5.5%
	건축시공과		
	조경과		

기계	기계과	405	17.2
	냉동공조과		
	자동차과		
	조선과		
	항공과		
재료	금속재료과	28	1.2
	세라믹과		
	산업설비과		
화학 공업	화학공업과	43	1.8
섬유 · 의류	섬유과	20	0.8
	의류과		
전기 · 전자	전기과	367	15.6
	전자과		
정보 · 통신	방송 · 통신과	145	6.1
	정보컴퓨터과		
식품 가공	식품가공과	84	3.6
인쇄 · 출판 · 공예	인쇄 · 출판과	11	0.5
	공예과		
환경 · 안전	환경보건과	6	0.3
	산업안전과		
농림 · 수산 해양	농업과	153	6.5
	원예과		
	산림자원과		
	동물자원과		
	농업기계과		
	농업토목과		
	해양생산과		
	수산양식과		

	해양레저과		
선박 운항	항해과	16	0.7
	기관과		
기타	-	4	0.2
합계	-	2,358	100

출처 : 교육부(2021) 자료 재구성

특성화고 교육과정의 핵심은 전문교과 중심의 실무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교과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배우는 전공과목을 말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는 보통교과를 66단위 이상, 전문교과Ⅱ를 86단위 이상 편성해야 한다.

<표 II-3> 직업계고 교과운영 현황

구분	교과영역	교과(군)	공통과목(단위)	필수 이수단위	지율편성단위
보통교과	기초	국어	국어(8)	24	학생의 적성·진로와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영어	영어(8)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포함)	통합사회(8)	12	
		과학	통합과학(8)		
	체육·예술	체육		8	
		예술		6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 /한문/교양		10	
	소계				

전문교과	17개 교과(군) 등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출처 : 교육부(2017) 2015 개정 교육과정

NCS 기반의 2015개정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고교 직업교육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성화고에는 전문교과 단위 수가 증가하고 실습의 비중이 높아졌다. 전문교과는 전문공통, 기초과목, 실무과목으로 구분된다. 기초과목과 실무과목의 비중은 각각 46.3%와 50.8%로 실무과목의 비중이 다소 높다. 이는 곧 면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과목, 실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도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학습중심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등 면대면 실습교육을 강조하였다(정은진, 김남희, 2020).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문교과가 늘면서 실습의 비중도 절대적으로 늘어난다.

<표 II-4> 직업계고 학년별·과목군별 평균 이수 단위

과목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소계
보통교과		39.6	30.1	6.3	76.0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	0.8	0.7	1.9	3.5
	기초과목	18.1	14.6	18.2	50.9
	실무과목	2.5	15.1	34.7	52.3
	소계	21.4	30.4	54.8	106.7
학년별 평균 이수 단위		61.0	60.6	61.1	182.7

출처 : 김남희, 변숙영, 최동선(2021)

## 나. 특성화고 학생의 특성

통계청에 따르면 만 18세 기준 학령인구는 2019년 59만 4,278명, 2020년 51만 1,707명, 2021년 47만 6,259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2021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지방 사립대는 물론이고 거점 국립대까지 미달 사태를 빚었다. 대입 정원이 수험생 규모를 추월하고, ‘마음만 먹으면 모두가 들어가는’ (한겨레신문, 2017.06.19.) 대학이 되자, 고졸 취업을 목표로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학생 수도 줄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성화고 학생의 특성에도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기보다, 성적에 따라 마지못해 특성화고로 진학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09)은 특성화고 학생의 가정 경제적 수준이 일반고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2017)의 조사에서도 학교 유형에 따라 월 평균 가구소득이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고는 ‘300만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데 반해, 특성화고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소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서적인 문제로도 나타난다(Lempers 외, 1989). 이봉주 외(2014)의 연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9~18세 청소년의 심리사회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기는 미래 직업을 선택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경제적 어려움은 직업선택과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성화고 학생의 학업성취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언 외(2015)는 특성화고 학생의 상당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한 상태로 고교에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는 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로 졸업한다고 하였다. 학습결손으로 인해 수업 몰입도가 낮고(송교원, 이창훈, 2014) 학습동기를 잃은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를 갖기도 어렵다(나승일, 마상진, 2002). 이러한 경험은 성인기로 이어진다. 학습에서의 성취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학습을 어려워하고 경력개발과 진로계획을

세우지 못한 채 한정된 범위 안에서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임언 외, 2016).

사정이 이런데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력은 제대로 측정되거나 평가되지 못해 왔다. 국내 통계에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특성화고를 포함한 직업계고는 2012년 이후 기초학력에 관한 국가 통계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되었고, 별도로 언급되지도 않는 실정이다(임언, 2020). 다만 임언(2019)이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직업계고 학생의 비율은 우리 나라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36%로, 독일과 일본의 2배 수준에 달했다.

반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낮은 학업성취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특성화고 생활에 만족한다는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안재영(2019)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학과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학생들은 전문교과 수업이 전공분야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고, 진로교육도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현주와 부은주(2020)의 연구에서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영어와 수학, 과학 과목의 흥미는 중학교 시절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부진과 낮은 학습 동기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흥미와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학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다.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 현황**

학생들이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시기는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때이다. Ginzberg(1972)는 고교 시기를 진로를 결정하는 잠정기 및 현실기로 보았다. 청소년들은 현실적인 요인을 검토하고 타협하며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된다. Super(1967)는 14세~18세를 결정화 단계, 18



세~21세를 구체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 시기 개인은 자신의 욕구와 흥미,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미래의 직업을 구체화해 나가는데, 바로 특성화고 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지혜, 정철영, 2010).

학생들의 진로결정수준은 노동시장의 변화와 직업교육 정책에 따라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김인곤, 2015). 1980년대 말까지 특성화고가 고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주력하였다면, 1990년 이후 직업교육의 축이 전문대로 이동하면서, 특성화고는 어려움에 직면하였다(이쌍철, 엄문영, 2014). 취업과 임금, 승진 등에 있어 대졸자와 격차가 벌어졌고, 특성화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었다(김안국, 신동준, 2007).

2010년대 들어 고졸취업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특성화고는 다시금 부흥기를 맞았다. 2010년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었고, 이어서 2011년에는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과 재직자특별전형 확대 및 활성화방안이 발표되었다. 2011년에는 열린고용 강화 방안, 2014년에는 고졸취업활성화방안이 발표되었다. 정부의 잇단 고졸취업지원정책은 실질적인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특성화고 취업률은 2010년 이후 급격히 올라, 2017년에는 52%를 넘어섰다. 그러나 취업의 질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하영만, 2014). 특히 현장실습 도중 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저임금과 비정규 노동, 대졸자와의 격차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고졸취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불황까지 겹치면서 취업률은 더욱 낮아졌다. 더불어 중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특성화고의 위상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전영욱, 2021).

<표 II-5>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연도별 진로 현황

연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입대자	기타
2010	156,069	29,916	19.16	110,998	71.12	865	14,290
2011	152,824	35,698	23.35	97,400	63.73	1,317	18,409
2012	146,522	48,046	32.79	80,468	54.91	1,052	16,956
2013	141,774	50,146	35.37	67,184	47.38	782	23,662
2014	112,114	51,652	46.07	41,045	36.61	535	18,882
2015	108,055	51,491	47.65	37,383	34.59	390	18,791
2016	107,546	51,760	48.12	35,914	33.39	536	19,336
2017	102,657	53,349	51.96	32,078	31.24	463	16,767
2018	98,122	43,044	43.86	33,459	34.09	509	21,110
2019	96,310	32,736	33.99	38,811	40.29	762	24,001
2020	87,110	24,441	28.05	36,835	42.28	1,583	24,25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1) 재구성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 시기는 일반고 학생에 비해 비교적 빠른 편이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고교 입학단계에서부터 취업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고, 입학한 후에는 자신의 전공에 맞춰 다양한 취업준비행동을 해 나간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학생들이 소질과 흥미보다는 낮은 학업성적이거나 가정형편 때문에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자신이 진학한 학교와 학과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정보가 없다고 한다(이정규, 2011; 배상훈 외, 2011). 때문에 진로의식 수준이 낮고 학생들은 진로결정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맹희주, 2014). 학력위주의 채용관행과 고졸취업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여전하다보니 취업준비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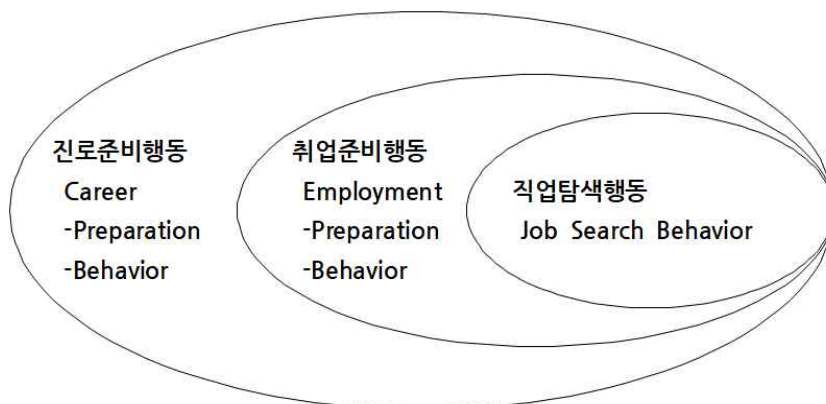
특성화고는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학생들을 해당분야의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 교육과정에 있

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직업과 인생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정보 제공도 필수적이다.

## 2. 취업준비행동

### 가. 취업준비행동의 개념

진로 행동과 관련한 연구는 크게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 취업준비행동(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개념이 혼용되는 만큼, 용어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취업준비행동은 직업탐색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중간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제경과 김동일(2004)은 취업준비행동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당면한 취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았다. 진로준비행동보다는 구체적이고, 직업탐색행동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1> 진로준비행동, 취업준비행동, 직업탐색행동의 관계(이제경, 2004)

먼저 직업탐색행동은 잠재적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을 말한다(Barber 외, 1994). Kanfer 외(2001)는 직업세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졸업 예정자나 비자발적 실직자, 또 새로운 직업을 찾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행동이라고 하였다. Blau(1994)는 개인이 취업정보를 찾고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직업을 결정하는 반복적인 과정이라고 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행동을 보다 강조한 개념이다. 김봉환(1997)은 한 개인이 진로목표를 설정하거나, 자신의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준비행동을 진로준비행동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행위로, 진로결정과정은 물론이고, 진로결정 이후의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김봉환은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진로준비행동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취업준비행동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제시한 연구자는 이제경(2004)이다. 취업준비행동은 졸업 후 직업을 준비해가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김윤중, 2015). 진로준비행동보다 더 현실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이후 이제경은 이승구(2008)와 함께 취업준비행동의 개념을 직업탐색행동과 진로준비행동의 중간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어윤경 외(2011)도 취업준비행동에 대해 개인이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물론이고, 취업 후에도 자신과 환경에 관한 정보를 얻으며 직면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행동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김주섭(2017)은 대학생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직업과 구직처를 탐색하고, 자격을 갖추며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진로준비행동이 전반적인 진로를 강조하였다면, 취업준비행동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취업준비행동과 이들 유사개념은 명확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

<표 II-6> 학자별 취업준비행동의 정의

학자	정의
이제경(2004)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
이제경, 김동일(2004)	대학생들의 구직행동
이승구, 이제경(2008)	취업을 위해 관련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정보 수집 및 검색방법을 통해 해당 직업세계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중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준비 단계
이영민, 이수영(2010)	취업을 위해 관련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한 정보 수집과 검색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직업세계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며, 해당 직업세계에 중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준비의 단계
김은정(2011)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임과 동시에, 정보검색을 통해 직업과 회사를 알아보고, 취업에 성공하기 위한 필요 도구를 갖추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자신의 취업가능성을 높여가는 행동
박소영, 정영숙(2011)	자신이 원하는 직업획득을 위해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 및 취업 가능성을 높여가는 노력
이나영(2012)	구체화되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한 준비행동
이영민, 이수영, 임정연(2013)	직업탐색행동을 포함해 희망 직업세계에 중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준비과정
고완숙(2014)	취업정보탐색과 취업준비행동을 포함한 일련의 취업문제 해결 과정
한예정(2014)	대학생들이 대학생활 등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역량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및 행동
김현정(2016)	항공사 취업에 대비하여 항공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역량과 능력을 갖추어가는 모든 단계와 행동
진경미(2015)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황정희(2016)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도중에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행하는 모든 노력

홍성표(2016)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공식적,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필요한 행동을 수행하는 것
지계웅, 한진영(2016)	잠재적 취업 가능성이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인 직업탐색행동을 포함해 희망 직업세계에 종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준비과정
김보람(2018)	대학생이 대학 생활 중에 행하는 취업을 위한 노력
배정미(2018)	희망하는 직업에 적합한 능력과 지식 축적,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취업을 준비해나가는 행동
김상식(2019)	자신이 원하는 직업 획득을 목표로 하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세계에 필요한 역량을 준비해가는 일련의 행동
원정달(2019)	자신이 원하는 회사나 분야에 취업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는 일련의 구체적 행위
윤시혜(2019)	자신이 원하는 직업의 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준비하는 과정 및 행동
김흥수(2020)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할 목표를 가지고 구체적인 취업 정보를 수집하며, 취업 분야에 대한 역량과 지식을 얻고, 취업 기회를 얻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취업 예비활동
황수진(2020)	개인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행하는 이력서 제출 및 시험 등의 본격적인 준비 행동
신경섭(202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개인이 취업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탐색 및 수집하고 필요한 자격 또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활동

출처: 신경섭(2021), 김상식(2019)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선행연구에서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높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학점과 외국어 점수, 자격증 등 소위 스펙이 중시되며, 심각한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준비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김계현, 2000). 이는 고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게 되는 특성화고 학생들

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다. 고교단계의 직업교육이 취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보다 지속적인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다. 일반고나 대학 졸업자에 비해 취업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만큼,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나. 취업준비행동의 측정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이제경(2004)과 어윤경 외(2011)의 도구를 기초로 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측정하고 있다.

이제경(2004)은 대학교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준비행동의 하위 요인으로 예비적 취업준비행동과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을 구성하였다.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은 대학 재학 기간 동안 학점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취업 상담을 받거나, 일자리를 체험해보는 행동 등을 말한다.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은 보다 직접적인 직업탐색과 선택의 과정이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윤명희와 유형숙(2010)은 한국과 일본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희망직업 일치여부와 취업준비행동을 연구하면서,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을 학점관리, 제2외국어 공부, 국가고시와 각종 시험 준비, 자격증 취득, 해외유학과 어학연수, 직업교육과 훈련, 직무경험 쌓기, 진로검사와 취업관련 상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검사도구를 개발한 어윤경 외(2011)는 적극적 직업탐색과 예비적 직업탐색, 공식적 직업탐색과 비공식적 직업탐색, 취업준비 노력과 취업준비 강도의 6개의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적극적 직업탐색은 희망하는 회사에 이력서를 내고,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예비적 직

업탐색은 학점을 관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입사에 필요한 자격 준비를 의미한다. 공식적 직업탐색은 인터넷과 TV 등의 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며, 비공식적 직업탐색은 선후배 등 지인을 통해 취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취업준비노력은 자료를 수집하고, 취업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가입해 정보를 얻는 활동 등이다. 취업준비강도는 취업 노력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묻는다. 3년제 전문대 유아교육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취업준비행동을 분석한 유연화와 임경애(2011)는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취업준비강도로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예비적 취업행동은 자격증과 영어 성적 준비 등이, 본격적 취업준비행동은 면접 연습과 훈련, 구직 지원서 등이 포함된다.

조운서(2013)은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을 7개로 구성하였다. 취업 목표를 설정했는지, 학점이 인정되는 취업 관련 교과목을 들었는지, 직장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직업심리검사에 참여했는지, 교내 취업 박람회에 참여했는지,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면접기술과 이력서 작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는지, 취업캠프에 참여했는지이다.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는 대졸자의 성별과 학교유형, 소재지, 전공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한예정(2014)은 조리외식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하위요인은 경력준비와 어학 공부, 전공 자격증, 학점관리, 전공특강, 학원 수강 등으로 구성하였다. 정민주(2014)는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불안과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취업준비행동을 취업상담행동, 정보탐색활동, 준비계획활동의 세 가지로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박인실과 김미정(2015)도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경력준비와 어학공부, 전공 자격증, 학점관리, 전공특강, 학원 수강 등 5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홍성표(2016)는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취업준비행동 도구를 제안하였



다. 하위요인은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취업예비 행동으로 구성되었다. 김상식(2019)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취업 준비행동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는데 취업상담활동, 정보탐색활동, 준비계획활동 등 3개로 나타났다. 취업상담활동은 개인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 참여를 의미하며, 정보탐색활동은 자신을 포함해 직업 세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준비계획활동은 진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말한다. 신경섭(2021)은 공업계열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보 수집 활동, 도구 구비 활동, 실천적 노력 등 3개의 하위 요인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의 하위요인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 취업을 위한 자격을 갖추는 활동, 구체적인 취업행동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7> 취업준비행동 하위요인 및 측정도구

측정도구	연구자	하위요인	문항수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이제경(2004)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7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8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이영민, 이수영 (2010)	학교생활	1
		취업목표	1
		취업정보검색방법	1
		취업활동	1
		취업 시 고려사항	1
		취업 사교육	1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윤명희, 유형숙 (2010)	어학연수	1
		학점관리	1

		영어공부	1
		제2외국어 공부	1
		국가고시 및 각종 시험 준비	1
		자격증 취득	1
		해외유학 및 어학연수	1
		직업교육 및 훈련	1
		인턴 자원봉사 등 직무경험 쌓기	1
		진로검사 및 취업관련 상담	1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김은정(2011)	공식적 정보탐색활동	6
		비공식적 정보탐색활동	10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6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10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박소영,정영숙(2011) 진경미(2015) 황정희(2016)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7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8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어윤경 외(2011)	비공식적 직업탐색	10
		공식적 직업탐색	6
		취업노력강도	2
		취업준비노력	6
		예비적 직업탐색	6
		적극적 직업탐색	10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유연화, 임경애 (2011)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8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4
		취업준비 강도	2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한예정(2014)	이력서에 포함할 경력준비	1
		어학공부	1
		자격증 취득	1

		학점관리	1
		교과목(전공) 관련 특강·학원 수강	1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김현정(2016)	자격증취득	1
		외모관리	1
		상담 및 조언	1
		정보수집의 근원	1
		채용박람회 및 설명회 참석	1
		학원 수강 여부	1
		면접을 위한 구체적 준비	1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고완숙(2015)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8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10
		학교 정규과정을 통한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7
		학교 외 비정규 과정을 통한 예비적 취업준비행동	8
		본격적 취업준비행동	7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홍성표(2016)	공식적 취업정보탐색	5
		비공식적 취업정보탐색	5
		취업예비행동	5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김상식(2019)	취업상담	6
		정보탐색	6
		준비계획	6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신경섭(2021)	정보수집활동	9
		교외활동	7
		구체적노력	7

출처 : 오은영(2019), 김상식(2019) 등을 참조하여 재구성

#### 다. 취업준비행동 관련 변인 고찰

취업준비행동에 있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은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왔다. 특히 청소년은 가족 등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며(박기춘, 2002) 취업을 준비해나간다.

취업준비행동과 관련한 대표적인 개인특성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학년 등의 개인 일반특성과 주로 개인의 진로발달변인과 관련된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진로결정수준,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다(윤미숙, 2017). 고완숙(2015)와 조윤서(2013)는 여학생의 취업준비행동수준이 남학생보다 높다고 하였고, 이제경과 김동일(2004)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취업행동도 높아진다고 하였다.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도 취업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김수리, 박미진, 2008). 진로결정수준은 취업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진로미결정수준이 낮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득연, 2004; 노연희, 장재운, 2005; 한지현, 장재운, 2005; 이지영 외, 2005). 최근에는 정서성격 변인이 진로관련 변인으로 주목받고 있다(선혜연 외, 2016). 예를 들어, 우유부단한 성격은 비단 진로 뿐 아니라, 의사결정 전반에 어려움을 불러온다. Saka 등(2008)은 성격과 진로의 관계를 연구하면서, 특성불안과 자존감, 자아정체감, 타인과의 갈등 같은 성격 측면을 함께 언급하였다(민경희, 김봉환, 2014).

취업준비행동 등 진로관련 변인 연구에서, 가정특성 요인으로는 부모의 경제 수준,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진로지지, 부모의 교육기대 등이 다루어져왔다(홍성표, 201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단지 경제적인 지원의 수준을 넘어, 가정환경을 형성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다루어져왔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직업성숙에 영향을 미치며(김현옥, 1989), 김수리(2004)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혜경(2008)도 진로와 관련한 부모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해 김수리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윤광현(2013)은 가족지원과 사회지원이 많을수록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하였고, 조아미(2007)도 가정에서 이뤄지는 진로선택에 관한 대화나 정보 찾기 활동은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부모로부터의 지지와 대화가 부족하면 진로결정수준은 낮아진다.

학교는 가정에 머물던 개인이 사회로 나아가는 첫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며, 학교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이들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며 만족하는지는 졸업 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황여정, 김경근, 2006) 취업준비행동과 관련한 학교수준의 변인으로는 대학소재지, 대학의 규모, 취업률, 전공만족도, 학과교수만족도, 대학취업지원역량 등이 있다(윤미숙, 2017). 조운서(2013)와 최선미(2015) 등은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 학생과 수도권 대학 학생은 취업성가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전공만족도 취업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한예정, 2014) 학과교수만족도도 학생들의 취업준비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주성, 2016), 그러나, 이는 주로 전문대 학생 이상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한 변인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진로결정과 관련한 학교 수준의 변인으로는 계열, 진로상담, 진로체험, 학교의 취업지원,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참여비율, 학교의 소재지 여부 등이 연구되어 왔다(조규형, 2014). 오석영과 조인식(2015)은 진로연구에 있어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만족도를 학교특성 요인으로 보았다. 교사와 학생은 공식적으로는 학습을 위한 관계이지만, 학습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학생은 학업성취는 물론이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학교생활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진숙, 2002).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 가정, 학교특성요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8>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요인	하위요인
개인요인	성별, 연령, 학년, 전공선택동기, 직업가치관, 진로결정수준,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등
가정요인	부모의 경제 수준, 부모의 최종학력, 부모의 진로지지, 부모의 교육기대 등
학교요인	소재지, 취업률, 전공만족도, 교수(교사)만족도, 학교의 취업지원역량, 계열, 진로상담, 진로체험, 관련기관과의 연계, 현장실습 참여 비율, 교사와의 관계, 학교만족도 등

이 연구에서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운데 개인특성 요인으로 불안을 선정하였다. 이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불안과 취업불안이 증가한 데다, 원격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고립불안이 커진 환경과 관련이 있다. 가정특성 요인으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선정하였는데, 원격수업으로 인해 물리적인 교육공간이 가정으로 옮겨짐으로써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격차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적 처치로서 교사학생관계와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고자, 이를 학교특성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 3.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원격수업만족도

#### 가. 불안

##### 1) 불안의 개념

불안은 불쾌한 정서상태를 말한다. 이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느끼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조미영, 2007). 적당한 불안은 긴장감을 주고, 일의 효율을 높이는 자극제가 된다. 하지만, 지나친 불안은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이성진, 1985). 불안이 심할 경우, 개인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기 힘들고, 대인관계나 조직 적응에도 심각한 장애요인이 된다(김정택, 1978). 특히 불안수준이 높은 사람은,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Greenhaus, Sklarew, 1981), 불안은 진로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Freud(1920)는 불안을 환경의 위협에 대해 자아가 보내는 경고라고 보았다. Freud는 불안을 현실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현실적 불안은 자아와 세계의 대립에서 오며, 외부 세계에서 오는 실제적 위협에 대한 현실적 반응이다. 신경증적 불안은 자아와 원초아의 대립으로, 본능에 따라 행동했을 때 받게되는 처벌에 대한 불안이다. 도덕적 불안은 자아와 초자아의 대립으로, 양심에 따른 두려움이다. 사회적 규율에 위배되는 생각이나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경계심과 공포를 의미한다.

신프로이드 학파는 본능보다는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불안을 잘못 형성된 대인관계의 문제로 보았다. 특히 유아기나 성장기의 부모와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 Adler는 인간은 출생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환경에 소속되는데 이때 사회적인 불안전감에서 야기되는 열등감을 불안이라고 하였다(Ellenberger, 1970). Horney(1976)는 유아가 고립

된 존재라고 느낄 때 불안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Sullivan은 중요한 인물들이 개인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느낄 때 불안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1950년대 들어서면서 불안을 측정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Taylor(1953)는 표출불안척도((Manifest Anxiety Scale : MAS)를 개발하였다. Spielberger와 Gorsh(1970)는 상태특성불안검사(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 STAI)를 제작하였다. Spielberger(1975)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두가지로 불안을 개념화하였다.

상태불안은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반응을 말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개인이 지각하기에 주어진 환경이 위협적이라면 상태불안은 높아진다.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면 상태불안은 높아지지 않는다. 상태불안은 즉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특성불안은 타고난 불안이다. 개인의 선천적인 성격특성이라고 볼 수 있으며(Scovel, 1978), 스트레스와 연관되어 특정 상황에서 반응으로 표출될 때까지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인 불안양상이다(Spielberger, 1972). 특성불안이 높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 쉽게 불안을 경험한다. 일반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느끼거나, 지나치게 압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Zwener, Deffenbacher, 1984). 특성불안은 상태불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특성불안이 상황에 대한 지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Spielberger, 1972).

최근에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불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종 사회문제로 확장되는 추세인데, 주로 정치불안, 경제불안, 노동불안, 교육불안, 취업불안, 빈부격차불안(이훈구, 2004; 박수애, 송관재, 2005) 등이 다뤄지고 있다. 사회불안을 유발하는 사회적 특성들에 주목하는 연구(홍영오 외, 2006)도 활발하다(안주희, 2009).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불안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불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첫째는 감염불안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팬데믹으로 규정하였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 2개월 만인 2021년 3월 25일, 누적 확진자 수 기준 만명을 넘어섰다(중앙방역대책본부, 2021).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감염병 피해 가운데 최대규모이다. 신종 전염병의 유행은 감염불안을 높인다. 실제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 중 47.5%가 다소 또는 심각 수준의 불안이나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완주 외, 2021). 이동훈 외(2016)는 감염병이 유행할 때, 사람들은 어디서 감염될 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대인 접촉을 꺼린다고 하였다.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고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외출을 삼가는 등 일상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의 2020년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우울 경험이 각각 48.8%, 29.7%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동훈 외, 2020). 이은란(2021)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감염병 위험이 삶의 질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하였다. 전진아와 이지혜(2020)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분노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둘째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등교제한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 불안이다. 사회적 고립은 가족이나 친구, 학교 등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제한되거나 전혀 없는 상태로 정의된다(Berg, Cassells, 1992). 새 학기가 시작되고도 담임교사를 만나지 못한 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중앙일보, 2020.11.24).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러한 고립불안에 더욱 취약하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하였더니, '관심'으로 분류된 1학년 학생은 모두 16.7%로 전년도 5.0%의 3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동아일보, 2021.02.22.). Tinto(1975)는 학습에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상호작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학습자는 고립을 경험하며 학습을 중도포기하게 된다. 물리적인 접촉이 배제된 채 혼자 진행하는 원격학습은 대면수업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인식되며, 고립불안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취업불안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개인이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여길 때 불안을 경험한다. 적당한 불안은 취업준비에 긍정적 동기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나친 취업불안은 신체적, 심리적 평형상태를 파괴한다.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준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인혜, 유금란, 2020). 조규관(2008)은 경기침체와 취업난에 대한 언론보도,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주변사람들의 상황 등이 개인으로 하여금 취업불안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상황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취업불안은 낮은 학교성적이나 부족한 취업준비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또 부모님의 기대나 전공학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따라서 내외적 요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가 불안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정다솜, 2021). 불안이 낮은 학생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지만(김봉환, 1997), 취업불안 수준이 높은 학생은 자신의 목표와 미래 행동에 대한 결정 수준이 매우 낮다(김판환, 1997). 반면, 적절한 취업불안은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서지윤(2008)과 주명진(2010)은 불안이 취업준비행동을 유발하며, 불안을 조절할 수 있으면 긍정적 효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적절한 취업불안은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지만 과도한 취업불안은 진로준비행동을 부정적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한미옥, 조규관, 2021)

## 2) 불안의 측정

대표적인 불안 측정도구는 Spielberger(1970)의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이다. 이 도구는 불안을 상태불안(A-State)과 특성불안(A-Trait)으로 구별하여 각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에서는 한덕용 외(1993)가 Spielberger 외의 척도를 상태특성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로 표준화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각각 20문항씩 측정하고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도치 문항이 포함되어 역채점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Saka 외(2008)의 불안 연구는 진로결정과 관련이 깊다. 진로미결정 요인으로 정서와 성격적 부분을 포함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정서 및 성격특성 척도(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EPCD)는 불안과 자아개념 및 자아 정체감, 비판적 관점을 4가지 하위요인으로 두고, 다시 요인분석을 통해 11개의 하위요인을 분류하였다.

조규관(2008)은 취업불안 척도를 개발하였다. 부산지역 대학생 57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취업불안과 행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적절한 수준의 취업불안은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한다. 그러나 취업불안이 너무 높거나, 아예 불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취업준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관은 취업불안의 하위요인으로 취업불안 유발상황과 취업불안 유발원인 그리고 취업불안 상태를 제시하였다.

민경희(2014)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불안 척도를 개발하였다. 한국판 EPCD 척도를 타당화하면서 불안을 3가지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과정에 대한 불안이다. 이는 진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이다. 완벽주의적 성향일수록 진로탐색과정에 불안을 느낀다. 둘째,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다. 모호한 미래에 대해 느끼는 불안을 말

한다.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모호한 상황을 어려워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은 책임에 대한 불안이다. 진로 의사결정 상황과 문제에 책임을 느끼는 불안이다. 일단 진로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잠재적 선택지가 사라진다는데서 불안을 느끼게 된다. 완벽한 직업을 찾으려는데 따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9> 불안의 하위요인 및 측정도구

측정도구	연구자	하위요인		문항수
STAI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pielberger(1970) 한덕웅,이창호 탁진국(1993)	상태불안		20
		특성불안		20
EPCD (Emotional and Personality-Rel ated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Saka 외 (2008)	비관적 관점	과정에 대한 비관적 관점	3
			세계에 대한 비관적 관점	5
			자기통제성에 대한 비관적 관점	4
		불안	과정에 대한 불안	4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6
			선택과정에 대한 불안	7
			결과에 대한 불안	4
		자아 개념 및 정체감	특성불안	3
			자아존중감	4
			불안정한 자아정체감	4
갈등적 애착 및 분리	6			
취업불안 척도	조규관 (2008)	취업불안 유발상황		11
		취업불안 유발원인		7
		취업불안 상태		10
EPCD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Career Decision Making Difficulties)	민경희,김봉환 (2014)	과정에 대한 불안		20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		
		책임에 대한 불안		

## 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 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개념

Warner(1944)는 사회경제적 지위란 개인의 직업이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을 기초로 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행동을 서열화할 때 사용되는 사회계층의 주된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는 수입이나 직업, 재산, 거주지, 교육수준 등에 따라 결정되는 상대적인 위치를 말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가 가진 이들 요인의 상대적 위치로, 사회계층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Gans, 1974). 같은 사회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교육과 소득수준, 직업지위 등이 비슷하며 언어 활용과 지식, 습관, 윤리성 등에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진로와 관련된 연구에서 다양한 가족요인 가운데 사회경제적 지위는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 Super(1990)는 개인의 진로유형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Gottfredson(1981)은 진로포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사회경제적 요인을 들었다. 개인의 진로는 비단 가정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신이 속한 사회계층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직업선택과 발달 역시 교육 정도나 직업기대 등 심리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김형규, 강재태, 2005). 문수연(2016)은 자녀의 교육선택과정에서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물질적인 풍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자녀에게 교육정보와 풍족한 기회를 제공한다. 부모의 학력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고등학생 자녀의 성적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박현수(2013)의 연구도 이러한 결론을 지지한다. 유선(2009)은 부모 가운데 특히 아버지의 직업을 주목하였다. 자녀의 학업성취에 있어 아버지의 직업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의 직업은 이미 학력의 영향을 받았으며, 동시에 소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족자본의 한 형태로 보고 있으며,

가족자본에는 경제적 자본과 인적 자본 뿐 아니라, 가족 간 관계와 같은 사회적 자본을 포함시키고 있다. 부모의 소득이나 학력을 통해 자녀의 취업준비행동 등을 예측하기에는 다소 조심스럽다는 것인데, 이는 부모나 자녀의 노력으로 쉽게 극복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요인이 자녀의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칫 부모자녀 관계를 평가절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장영은, 2015).

##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측정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어느 한 요인만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요인은 교육수준, 직업, 가구의 수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러한 요인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두고는 일관된 방식이 없다(채정민, 2016; 김근영, 박금주, 2015).

Warner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사회계층을 분류하는 ISC(Index of Status Characteristics)척도를 개발하였다. 직업과 주택의 형태, 거주지역과 소득수준, 교육수준, 소득원 등 6가지 요인에 따라, 사회계층을 상, 중, 하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를 다시 상, 하로 나누어 모두 여섯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였다(홍재호, 200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요인은 크게 경제자본과 인적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경제자본은 학습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의미하며, 소득과 자산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경제자본은 자녀의 사교육 참여 등 차별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토대가 된다. 사교육비 규모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김경근, 2005). 가정의 인적자본은 주로 부모의 학력을 측정한다. 경제자본이 교육비처럼 직접적으로 작용한다면, 인적자본은 잠재적인 상태로 존재하며, 보다 상징적이다(김영은, 엄명용, 2018).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유전적 영향 요인이기도 하다. 김신일(2015)의 연구에 따르면, 지능

은 학업성취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 가운데서도 자녀의 학력과 학업적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박창남, 도중수, 2005). 교육은 직업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교육은 직업을 얻는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한다. 직업과 직무상의 권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계층을 형성하는 주된 요인이다(유선, 2009). 즉, 소득과 직업, 교육은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의 주된 척도라고 할 수 있다(정영애, 1978). 이미애(1993)는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도구로, 아버지의 학력과 소득, 직업을 꼽았다. 김영모(1999)는 재산, 학력, 직업, 수입, 가문의 순서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누었고, 홍두승(1999)은 직업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오욱환(2003)은 수입, 직업적 순위, 학력 등을 계량화하여 산출하는 사회경제적지위(SES)로 계층을 분류하였다.

황여정과 김경근(2006)은 부의 학력, 모의 학력과 가계의 월 평균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 고등학교 졸,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로 구분하였다. 통계과정에서 범주형 변인을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월평균 소득수준은 편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연로그 값으로 변환하였다.

신명호(2010)는 직업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계층을 중상층과 노동자 및 저소득층으로 구분하고, 직업분류기준에 따라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으로 직업지위를 분류하였다. 백순근과 박경인(2010)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아버지의 최종 학력, 어머니의 최종 학력,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의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최종 학력은 학교 재학연도로 환산하였는데, 중학교 졸업 이하는 9점, 고등학교 졸업은 12점이며, 2~3년제 대학 졸업은 14점,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6점, 대학원 이상은 18점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가정의 월 평균 소득도 100만원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100만원 미만은 1점부터 500만원 이상은 6점까지

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다양한 요인을 통합해 영향 수준을 종합적,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져왔다(박수익, 2011), 허아정(2021)과 김영도 외(2021), Kraus 외(2009), Cohen 외(2006)는 소득 수준과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을 각각 표준화하여 합산 점수를 구하고 이를 단일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임지혜와 김재우(2020)도 각 요인의 척도값을 합산하였으며, 김성식, 류방란(2008)은 하위요인의 T값 평균을 산출하여 단일지수를 구성하였다. 신민형(2015)과 위재원(2014)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학력, 직업, 소득에 각각의 점수를 부여한 후 합계를 내어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변인은 크게 소득, 직업, 교육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교육수준은 직업으로 연결되고, 다시 소득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녀의 진로결정과 관련해 부모는 훌륭한 역할모델이 되며, 자녀의 진로에 대한 지지 수준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부모의 교육수준은 중요한 구성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 다. 교사학생관계

### 1) 교사학생관계의 개념

인간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관계를 형성한다(주형철, 2006). 관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친구관계, 교사와의 관계, 직장동료와의 관계, 부부관계 등 관계는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Deci, Ryan, 2002). 개인은 관계맺음을 통해 신뢰와 지지를 얻고, 사회적 학습을 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된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사학생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백순근, 2000). 교사학생관계는 개인이 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형성된다. 가정과



학교는 환경변인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미시체계로 강조되어왔다 (Bronfenbrenner, 1979). 학교는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청소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인간관계 가운데 특히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 뿐 아니라, 학교환경과 학급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지은림, 2004). 교실에서 학생들의 태도와 행동은 사실상 교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교사-학생관계에 있어서 교사는 비대칭적인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박경인, 2010). 즉 교사는 학생의 행동과 사고를 변화시키는 주체로 신뢰와 지지를 공유하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Pianta, 1999). 따라서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한 학생은 학교생활에 적응하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안창선, 2004). 교사는 그저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일상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부모 이상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관여한다(신애현, 1998).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채워나가는 학생들에게 교사-학생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박승우, 2000).

학생은 스스로 교사-학생관계를 선택할 수 없다. 의무교육으로서 학교에 입학하면서 맺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는 학생과 교사 개인의 의지나 선택이 배제된다. 이런 이유에서 교사-학생관계는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박연호,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의 관계는 학생들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회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 또한 대두되고 있다(김민성 외, 2012).

교사-학생관계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정서적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다. Tyler(1964)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사랑으로 맺어지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인간관계라고 하였다. 김남희(2011)도 이러한 관계에 주목하였다. 그는 교육적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 개개인을 이해하고 학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유지되는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교사-학생관계로 정의하였다. 김태영(2006)은 학생들이 교

사를 유능하고 느끼며, 학생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박경인(2010)도 학생이 교사를 친밀하고 믿을 수 있으며 유능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정원식(1976)은 심리적 환경으로서의 학교공간을 강조하였다.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학교보다는 관계를 토대로 한 심리적인 환경이 인간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김종백 외(2014)도 교사학생관계를 심리적 애착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교사와 학생이 상호작용해나가는 심리적 공간으로 학생들이 교사의 지지를 느끼는 안정된 관계라고 보았다. 권순구 외(2016)는 교사학생관계를 친밀성, 애착을 넘어, 학업과 관련된 교사의 도움과 정서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교사가 동일한 행동을 하더라도, 학생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를 지각하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교사학생관계는 학생의 지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Brophy, Good, 1974). 선행연구들은 학생의 지각에 따라 학습동기나 학습성취가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김민성 외, 2009). Goodenow(1993)는 또래지지에 비해 교사지지의 가치가 더 유의하며, 교사관계가 학생의 내재적 흥미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학생이 느끼는 교사에 대한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학습 동기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Linger, 2001), 교사와의 관계가 바람직할수록 교육목표를 달성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창선, 2004). 학생은 교사를 신뢰하고 안전기지로 받아들이며,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학교에 적응해 나간다(조은정, 2008). 황순필(1998)은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학생은 자기 자신과 학급 활동에 만족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낀다고 하였다. 서경혜(2004)는 교사학생관계가 좋을수록 활발한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수업내용 전달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고, 김종백과 탁현주(2011)도 긍정적인 교사학생관계가 학생들의 학교적응과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배주영 외(2015)는 교사학생관계가 학생의 주관적 안녕감에, 김현진(2017)은 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이의빈과 한창근

(2017)은 학생의 내재적 삶의 목표 설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가 불안정하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학교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Birch, Ladd, 1997).

교사학생관계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청소년 시기에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사학생관계가 바람직하게 정립될 때,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교육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생들이 신뢰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곽명희 외, 2018). 학업성취도를 높이거나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2) 교사학생관계의 측정

교사학생관계의 하위요인으로는 진실성과 친밀감, 애착도, 이해공감 등 다양한 변인들이 논의되어 왔다. 교사학생관계 척도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Tyler(1964)는 교사학생관계의 하위요인으로 진실성, 무조건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를 제시하였다. 진실성은 교사가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조건 긍정적 존중은 어떤 상황에서도 조건없이 긍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공감적 이해는 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말한다.

Newby와 Rickards. Fisher(2001)는 학생의 지각을 기준으로 교사학생관계를 측정하는 QTI(Questionnaire on Teacher Interaction)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지도력, 우호성, 이해함, 학생 책임감/자유, 불확실성, 불만족, 훈계, 엄격함의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Creech와 Hallam(2011)은 교사학생관계가 정서적, 인지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사학생의 상호작용을 4가지의 하위요인으

로 구성하였다. 하위요인은 일치합의형, 과묵형, 복종형, 학생영향형이며, 이 역시 학생의 지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일치합의형은 서로 이해하며 친밀감을 지니는 관계를 말한다. 과묵형은 비호의적 관계이며, 복종형은 교사의 권위가 강한 관계이다. 학생영향형은 학생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갖는 관계이다.

국내에서도 교사학생관계를 측정하려는 연구들이 이어져 왔다.

한광택(1990)은 바람직한 교사상 연구를 위해 교사학생관계척도를 개발하면서 모두 15개의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하위요인은 민주성, 지도력, 책임감, 자신감, 창의성, 칭찬, 관심도, 공정성, 친절성, 유머, 융통성, 자제력, 침착성, 이해심, 일관성이며 이 역시 학생의 지각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황순필(1997)은 Tyler(1964)의 척도를 변안 수정하면서, 하위요인을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의 3가지로 구성하였다.

김승진(2002)은 교사학생관계의 교사 변인을 교사의 개인특성과 교수활동, 학생생활지도 변인으로 나누었다. 개인특성 변인은 도덕성, 직무에 대한 열의와 헌신, 그리고 자신감이다. 교수활동 변인은 교과전문성과 교수법이며, 학생생활지도 변인은 학생존중과 개방성, 수용성, 학생에 대한 관심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김인예(2003)는 요인을 크게 교육활동과 인성사회성으로 구분하였다. 교육활동은 공정성, 관심도, 이해성, 친절도, 적극성, 독창성, 책임감, 일관성, 조직성, 융통성, 지식수준으로 구성된다. 인성사회성은 민주적 태도, 민감성, 매력적 특성, 침착성, 자신감, 낙천적 태도인데, 이들이 학생의 동기나 학업성취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연구하였다.

지은림 외(2003)는 Tyler(1964)와 Rogers(1969)의 이론에 기초하여 교사학생관계를 이해공감, 친밀감, 신뢰감, 존중감, 유능감의 다섯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해공감은 교사가 학생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친밀감은 교

사와 학생 간의 개방적인 의사소통 정도를 말하는데, 서로 애정을 나누며 이루어가는 감정적 조화를 일컫는다. 신뢰감은 교사를 엄격하고 무섭게 느끼기보다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 여기며, 학생들이 교사의 언행에 대해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존중감이란 교사가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학생을 고유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대하는 것을 말한다. 있는 그대로의 학생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으로, 학생에 대한 존중은 학생의 자신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유능감은 교사의 전문성을 말한다. 전문지식과 교수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로, 수업활동을 포함해, 교사가 실천하는 수업에 대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영(2006)은 중학생이 지각하는 교사학생관계 척도를 개발하면서, 이해공감, 친밀감, 신뢰감, 유능감의 4가지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이해공감은 학생들이 느끼는 교사의 관심과 이해 정도이며, 유능감은 교사의 수업 능력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를 의미한다.

김종백과 김남희(2009)는 학생교사 애착관계도구(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 STRS)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교사와 학생 간 애착 형성에 대한 안정과 불안정 양상을 평가한다. 하위요인으로는 민감성, 접근가능성, 수용성, 신뢰성의 4가지를 두고 있다.

박경인(2010)은 교사학생관계를 학생이 해당교사에 대해 친밀하고, 믿을 수 있으며, 유능하다고 느끼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친밀감, 신뢰감, 유능감을 3가지 하위요인으로 하는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 척도’를 개발하였다. 친밀감은 학생이 느끼는 교사의 친숙함 정도이며, 신뢰감은 학생이 교사를 신뢰하는 정도, 유능감은 학생이 판단하는 교사 능력을 말한다.

김희정(2012)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지은림 외(2003)의 척도를 청소년에게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였다. 이해공감과 친밀감, 신뢰감, 존중감, 유능감의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표 II-10> 교사학생관계 하위요인 및 측정도구

측정도구	연구자	하위요인	문항수
교사학생관계 척도	Tyler(1964) 황순필(1997)	진실성	8
		무조건 긍정적 존중	9
		공감적 이해	9
QTI(Questionnaire on Teacher Interaction)	Newby 외(2001)	지도력	6
		우호성	5
		이해함	6
		학생 책임감/자유	5
		불확실성	6
		불만족	6
		훈계	6
		엄격함	6
교사학생관계 척도	한광택(1990)	민주성	2
		지도력	2
		책임감	2
		자신감	2
		창의성	2
		칭찬	2
		관심도	2
		공평성	2
		친절성	2
		유머	2
		융통성	2
		자제력	2
		침착성	2
		이해심	2
일관성	2		
교사학생관계 척도	김승진(2002)	도덕성	3

		교사 개인특성	열의 및 헌신	3
			자신감	3
		교수활동	교과전문성	5
			교수법	5
		학교생활지도	학생존중	3
			개방성	2
			수용성	3
			학생에 대한 관심	4
교사학생관계 척도	지은림 외(2003)	이해공감		8
		친밀감		8
		신뢰감		8
		존중감		8
		유능감		8
교사학생관계 척도	김태영(2006)	이해공감		8
		친밀감		8
		신뢰감		8
		유능감		8
학생교사 애착관계 도구 (STRS :Student-Teacher Attachment Relationship Scale)	김종백, 김남희 (2009)	민감성		4
		접근가능성		3
		수용성		3
		신뢰성		4
교사학생관계 척도	박경인(2010)	친밀감		7
		신뢰감		7
		유능감		7
교사학생관계 척도	김희정(2012)	이해공감		6
		친밀감		5
		신뢰감		3
		존중감		3
		유능감		4

## 라. 원격수업만족도

### 1) 원격수업만족도의 개념

원격교육이란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형태를 의미한다. 대면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대면교육이라고도 불리며, 교수매체를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이희정, 2020). 반면 대면수업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교수활동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교육 형태이다. 원격교육으로 일컬어지는 온라인교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오프라인 교육으로 불리기도 한다.

<표 II-11> 대면교육과 원격교육의 특성

내용	대면교육	원격교육
시공간 측면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적으로 함께 있음	교수자와 학습자가 시·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학습자 특성	대체로 동질적 같은 지역에 거주 대체로 학부모에 의존	대체로 이질적 분산된 지역에 거주 성인인 경우가 많음
교수방법	면대면 수업	교수매체를 통한 수업
상호작용	직접적인 상호작용	보고서·매체를 매개로 상호작용 학습자 지원매체를 통한 상호작용
교수개발	개별 교수자에 의존	부문별 전문가에 의한 공동작업
수업형태	교수자에 의존한 집단교육	교수매체에 의존한 개별학습
행정조직	교수자들이 행정업무의 일부 담당	학습자 지원, 코스개발 등 강력한 행정조직 필요

출처 : 이희정(2020) 재인용

원격수업은 그동안 온라인 수업, 웹기반 학습, 가상수업, 이러닝, 스마트러닝 등의 이름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국내에서는 단위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소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2017년 전체 고등학교의 35.8%가 원격수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쌍철, 박상완, 2017).

최근의 원격수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되었다. 원격수업 상황에서도 교사는 교육과정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하며, 또한 학교장이 정한 바에 따라 학기와 수업 시간에 수업 활동을 해야 한다(정영식, 2020).

교육부(2020c)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원격수업을 교수학습활동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 정의하였다. 형태에 따라, ①실시간 쌍방향 수업, ②콘텐츠 활용중심 수업, ③과제수행 중심 수업, ④기타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수업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 II-12> 원격수업 유형

구 분	운영 형태
①실시간 쌍방향 수업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실시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 (화상수업도구 예시) 네이버 라인 워크, 구루미, 구글 행아웃, MS팀즈, ZOOM, 시스코 Webex 등 활용
②콘텐츠활용 중심 수업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강의 혹은 학습콘텐츠를 시청하고 교사는 학습내용 확인 및 피드백 (강의+활동형) 학습콘텐츠 시청 후 댓글 등 원격 토론 ※ (예시) EBS 강좌, 교사 자체 제작 자료 등
③과제수행 중심 수업	교사가 온라인으로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맥락적으로 확인 가능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 (예시) 과제 제시 → 독서 감상문, 학습지, 학습자료 등 학생 활동 수행 → 학습결과 제출 → 교사 확인 및 피드백
④기타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출처 : 교육부(2020c)

원격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점이다. 학습자는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들을 수 없던 강의를 선택할 수 있다(이쌍철, 김정아, 2018). 또한 녹화된 강의를 반복 시청할 수 있고, 한정된 수업시간에 다루지 못한 내용을 수업이 끝난 후에 보충할 수도 있다(권영애, 송영은, 2017). 여기에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화상수업이라면, 실제와 같은 느낌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재감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Hrastinski, 2008). 학습자의 협동과 협력에도 효과적이며 대면교육보다 더욱 다양한 팀 활동이 촉진되기도 한다(Strijbos, 2007). 수업의 참여와 토론의 규모가 확장될 뿐 아니라(남지원, 남택진, 2017), 적은 비용으로 높은 학습효과를 낼 수도 있다.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거나, 개인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김소현, 2017).

하지만, 개별 학습자의 수업 참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시스템이 불안정하면 수업을 진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이영희, 2015).

특성화고의 원격수업은 전문교과 실습수업이 많아 어려움이 더욱 크다(김성남, 김남희, 2020). 직업교육 현장은 그동안 일터 기반의 현장실습을 강조해왔다(정은진, 김남희, 2020). 교사의 시범에 따라 학생들은 기자재와 도구를 이용해 실습하며 기능과 태도를 습득하게 된다. 실습 중 교사의 피드백과 상호작용도 필수적이다(김효겸, 2021). 그러나 원격수업에서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 교사가 학교 시설에서 실습하는 모습을 간접체험하게 된다. 특히 가정에서는 개별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실습수업과 피드백을 경험하기 어렵다(안재영 외, 2020). 계열과 전공분야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인다. 기계나 건설 분야는 가정에서 해볼 만한 실습이 거의 없다. 간호와 미용처럼 실습과제를 제공하는 수업이라 하더라도, 교사의 관찰과 피드백은 제한적이며 세심한 지도가 어렵

다. 농업계고도 과중 등 한번 시기를 놓치면 다시 실습을 하기 어려운 과목이 상당한 실정이다. 컴퓨터프로그램 같은 수업조차, 학생마다 PC의 보유상황이나 사양이 서로 달라 실습수업이 원활하지 않다.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서 실습수업 내용은 더욱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김남희 외, 2020).

김남희 외(2020)는 원격수업 도입 이후 특성화고에서의 이론과 실습 수업의 비중을 확인하였다. 2020년 1학기 대면수업의 실제 비중은 이론이 34.3%, 실습이 65.7%로 대략 1:2의 수준이지만, 원격수업에서는 그 비중이 역전되었다. 이론이 67.1%, 실습이 32.9%로 나타났다. 기초이론 중심으로만 수업을 한다는 응답도 42.8%나 됐다. 이와 함께 교사가 직접 실습 또는 도구를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설명했다는 응답이 23.7%,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실습과제를 제시한 후 과제물을 점검했다는 응답이 14.4%를 차지했다. 실습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원격교육에 활용할 교육자료도 부족하다. 국어, 영어, 수학 등 보통교과는 EBS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교과는 과목 수가 다양하고 학교마다 교육과정도 제각각이어서, 표준 콘텐츠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 콘텐츠 자체가 부족하다보니,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야 하는 교사들의 피로도도 높은 상황이다. 교사들은 기존의 교실수업에서 사용하던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튜브 링크로 수업을 대체하기도 하였다(김성남, 김남희, 2020). 백병부(2021)의 연구에서는, 2020년 특성화고가 일반고에 비해 실시간 화상수업을 더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 역시 EBS 방송 수업 등의 표준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교육 자료를 직접 제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도, 학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더 줄었다고 평가했다(김남희 외, 2020).

원격수업만족도는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말한다. 장

영문(2004)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내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집중과 열정, 호의의 감정적 태도를 갖는 만족감을 수업 만족도로 정의하였다.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으로부터 지식을 전달받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해 학습하는 적극적인 주체이다. 학생들은 수업에 만족할수록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기 때문에(주영주, 김나영, 2009) 수업만족도는 학생들의 학습에 의미 있는 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학습자가 느끼는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로 활용될 뿐 아니라(김한나, 2021) 원격수업에서도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나타난다(박진아, 2012). 이은곤(2020)은 학생이 원격수업에서 교수자나 다른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고립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 정도를 원격수업만족도라고 정의하였다. 원격수업만족도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대면수업과 달리 교수자와 학습자의 시공간이 분리된 만큼, 고립감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포함해 소통이나 소속감, 연대감과 같은 주관적 감정 상태도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먼저 코로나19 이전의 원격수업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사이버대학에서의 교육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정영란(2009)은 사이버대학의 학습자만족도를 조사하면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참여동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자 특성 정보의 분석을 강조하였다. 장은정 외(2010)는 사이버대학 학생들의 이러닝 콘텐츠 구성요소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연구하면서, 학습자의 성별과 전공과목의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설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서희전(2010)은 대학의 국제 원격 화상강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온라인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습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작용적인 수업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권성연(2011)과 최부기, 전주성(2011)은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수실재감은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교수실재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하였다. 권영중과 최성용(2017)은 사이버대학의 교육서

비스 품질이 학생들의 만족도와 중도 탈락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교육서비스 품질요소인 시스템 품질과 콘텐츠 품질, 서비스 품질 가운데 서비스 품질을 제외한 두 요인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정종구(2010)는 일반 대학 강의에서 대면수업 집단과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 집단을 구분하고, 실시간 상호작용의 유형과 학습자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집단의 만족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실시간 온라인 화상수업은 지방 거주 학습자의 학습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중등 단계의 연구로는, 강민경(2009)이 초등학교 사이버 가정학습을 이용하는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은 모두 소극적인 참여태도를 보였는데, 특히 학생들은 교사에 비해 더욱 수동적이었다. 또한 학생들은 콘텐츠에는 대체로 만족하지만, 교사와의 상호작용 면에서는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콘텐츠나 시스템에는 긍정적이었지만, 교사로서 역할에는 만족하지 못하였다. 강민경은 이 연구를 통해 학생과 교사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 마련과 더불어 수준별 콘텐츠 개발을 제안하였다. 황세원(2012)은 사이버 가정학습 과목별 콘텐츠의 학습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수학과 사회교과의 학습만족도는 높은 반면, 국어와 과학교과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교과별로 선호하는 학습방법 역시 다르게 나타나, 각 교과에 맞는 학습 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의 연구 대상은 전 학교급으로 확대되고 있다.

우선 초중등 단계에서는 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형미와 이동국(2020)은 교사들이 원격수업에서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정책과 원격수업에 대한 인식 차이, 학습자의 상이한 환경 차이가 원인으로 꼽혔다. 임은정과 권수미(2020)의 연구에서 음악교과의 원격

수업을 경험한 교사들은 수업 자료의 부족과 행정 업무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학습의 효과와 만족도를 주로 다루고 있다. 김미진(2021)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높을수록 원격수업만족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격수업 환경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미량, 김진숙, 2007; 조아라, 노석준, 2013)를 지지한다. 이쌍철과 김정아(2020)는 학생의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사의 학습 지원과 콘텐츠의 질, 그리고 시스템의 편리성이 학습자의 원격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관심에 따라 원격수업은 지루하고 흥미롭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너무 많은 시간과 유연성이 학습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영식, 2020). 계보경 외(2020)의 연구에서도 초중등학교 모두 온라인 수업에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연구는 보다 활발하다.

유민우(2020)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에서 시행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연구하였다. 면대면 수업의 대안으로 이루어진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교과유형에 따른 수업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강의 유형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교수자의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보다는 학습자의 발화 횟수가 높은 수업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혜선(2020)은 공과대학 학생들의 비대면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과제량과 원격환경에 적합한 실습 수준, 원격수업의 전달력과 흥미도, 교수의 열정과 이러닝 시스템의 편리성이 비대면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보람(2021)이 대학생의 원격화상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교수자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학습자는 ‘그렇지 않다’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앞으로도 원격화상수업을 수강하고 싶은지를

문는 문항에서 교수자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학습자는 ‘그렇지 않다’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화상강의의 질이나 과제량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강성배(2021)에 따르면, 실시간, 비실시간의 수업형태에 따라 만족도 차이가 벌어졌다. 대학생의 실시간 원격수업 만족도 평균은 4.55로 비교적 높은 반면, 비실시간 원격수업 만족도 평균은 4.20으로 낮게 나타났다.

원격교육은 특히 실습수업이 많은 교과에서 효과성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현철과 윤현수(2020)은 원격으로 진행한 체육수업에서 실기의 비중이 줄었다고 하였는데, 대신 이론의 비중은 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희승(2020)은 대학생의 음악분야 원격수업만족도 조사에서, 음질과 교수자와의 소통, 인터넷환경의 불안 등으로 실기지도 전반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 정숙진과 신영준(2020)은 교사 66명에게 초등 과학교과 원격수업 현황을 물었더니 모든 실험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용섭(2020)의 연구에서도 교사들은 실험내용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 기술교과의 비대면 수업에서도 실습과 체험 수업이 제한되면서 교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했다(모주순, 함형인, 2021).

반면, 공업계열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원격수업만족도를 조사한 김효겸(2021)은 원격수업을 기초이론으로만 수업할 때보다 실습으로 수업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비대면 상황에서 실습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조언하였다.

원격수업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실험실습이나 실기가 수반되는 교과는 이론지식을 전달하는 교과에 비해 원격수업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데(Kelly, 2020) 특성화고의 교육이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더라도 원격수업은 중요한 교육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특성화고의 원격수업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하다. 직업교육 현장의 문제도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저 취업률이 낮아졌다는 보고만 이루어질 뿐, 그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원격교육 연구가 대체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반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이는 곧 우리 사회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2) 원격수업만족도의 측정

원격수업이 대면수업과 다른 것은, 교수-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컴퓨터와 같은 매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안정성, 운영관리 등 물리적 환경을 고려해야한다.

노영(2005)은 웹 기반 원격 교육과 혼합 원격교육의 학습자 간 만족도 차이를 비교 연구하였다. 원격교육 학습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상호작용과 학습지원, 평가, 교수요인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주영주와 김나영(2007)은 원격대학의 강좌 평가 척도를 개발하였다. 하위요인으로는 만족도, 학습자, 과제, 운영지원, 수강생 간의 차이, 피드백, 수업설계, 컨소시엄 다양성, 상호작용, 평가의 총 10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영란(2009)은 사이버대학의 만족도 요인을 학습자, 교수자, 콘텐츠, 지원체제 및 시스템의 4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자 영역은 인구통계학적 요인과 학습자 능력, 학습시간, 선호도, 준비도, 상호작용으로 구성되었다. 교수자 영역의 하위요인은 교수의 능력, 수업 운영능력, 교수 방법의 다양성, 학습활동에 대한 피드백, 명확한 목표제시를 통한 학습자 독려, 학습자 간 협력 유도, 빠른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황세원(2012)은 사이버 가정학습 과목별 콘텐츠의 학습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사이버가정학습을 꾸준히 이용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콘텐츠 만족도는 화면구성과 학습방법,



상호작용, 평가의 4가지로 구성하였다. 김세련(2013)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습자 변인으로 이러닝 준비도를, 교수자 변인으로 교수 실재감을 설정하였다. 이러닝 준비도가 학습자 참여와 학습만족도, 인지된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때 교수실재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러닝준비도는 학습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교수실재감은 두 변인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손찬희 외(2014)는 스마트교육으로서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단위학교에서 개설하기 힘든 선택과목이나 전입생의 미이수 과목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배경적 변인과 온라인수업에 대한 이해 및 인식, 온라인수업만족도의 3가지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교사는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온라인수업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아름(2014)은 모바일러닝 학습자의 수업만족도를 조사하면서 학습만족도와 학습효과, 전이효과, 비용효과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정양수(2015)는 원격수업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학습자 요인, 환경적 요인, 교사 요인, 콘텐츠 요인, 관리적 요인의 5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환경적 요인은 학습자료의 내용과 질,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관리적 요인은 원격수업 기기와 인터넷환경 등 물리적 요인을 포함한다. 장미경(2018)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온라인수업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하위요인을 콘텐츠, 상호작용, 시스템, 전반적 만족도의 4가지로 구성하였는데, 콘텐츠와 시스템요인이 전반적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송미화(2019)는 이러닝 기반 학습의 만족도 하위요인으로 학습내용과 시스템, 운영관리의 3가지를 언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본격화되면서, 대학과 초중고교의 원격수업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었다.

박현정(2020)은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교사 요인, 콘텐

츠 요인 그리고 시스템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조보람(2021)은 원격화상 강의의 학습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강의내용과 상호작용, 평가 및 과제, 수업환경 및 관리, 만족도의 5가지 하위요인을 구성하였다. 유민우(2021)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교수자 만족도를 하위요인으로 설정하였다.

김효겸(2021)은 공업계열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원격수업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그는 상호작용, 콘텐츠, 시스템, 학습성과의 4가지로 하위요인을 구분하였다. 상호작용 영역은 교과 교사의 정보 안내, 학습관리 등의 4문항으로, 콘텐츠 영역은 원격수업의 분량, 난이도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시스템 영역은 학교에서 제시한 원격수업을 위한 사이트, 플랫폼으로의 이용성, 접속 용이성 등을 묻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성과 영역은 원격수업을 통한 전문교과의 지식, 직무능력의 습득을 묻는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원격수업만족도의 하위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3> 원격수업만족도 하위요인 및 측정도구

측정도구	연구자	하위요인	문항수
사이버가정학습에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 조사	강민경(2009)	참여실태	6
		만족도	11
		효과성	7
		개선방안	5
사이버가정학습 학습자 만족도 조사	황세원(2012)	화면구성	4
		학습방법	8
		상호작용	1
		평가	3
		이러닝준비도	24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만족도 조사	김세련(2013)	교수실재감	28
		학습자 참여	10
		학습만족도	3
		인지된 학업성취도	3
모바일러닝만족도 조사	정아름(2014)	학습만족도	13
		학습효과	3
		전이효과	7
		비용효과	4
인문계고등학교 온라인수업만족도 조사	장미경(2018)	콘텐츠	5
		시스템	4
		상호만족	4
		전반적 만족도	3
이러닝기반교육 학습만족도	송미화(2019)	학습내용	5
		시스템	4
		운영관리	5
초등 온라인영어수업 학습자만족도	박현정(2020)	전반적인 만족도	4
		교사요인	4
		콘텐츠 요인	2
		시스템 요인	2
원격화상강의 학습만족도	조보람(2021)	강의내용	3
		상호작용	3
		평가 및 과제	2
		수업환경 및 관리	4
		만족도	2
온라인수업만족도 측정	유민우(2021)	내용/설계요인	5
		전반적인 만족도	4

공업계 특성화고 원격수업만족도 조사	김효겸(2021)	상호작용	4
		콘텐츠	4
		시스템	3
		학습성과	4

## 4. 변인 간의 관계

### 가.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불안은 취업준비과정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심리변인 가운데 하나이다. 취업불안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자신감을 잃거나, 심리적으로 초조하고, 집중하지 못하며,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김홍석, 김정섭, 2015). 청년 취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최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준비행동 관련 연구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연구 결과, 대체로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준비행동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불안은 진로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aniels 외, 2006). 김봉환(1997)은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은 낮다고 하였다. 김경태(2003)의 연구에서도 특성불안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특성불안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현주(2009)는 상태불안이 높은 대학생들은 진로준비행동에 소극적이라고 하였고, 조혜정과 홍다영(2017)은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면서 불안을 경험하면 진로 관련 결정이나 행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서지윤(2008)은 불안이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오민경 외(2017)도 취업 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일시적인 불안은 심리적 압박함으로 나타나 진로

행동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이다. 정명희(2019)도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취업불안이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취업불안이 적당한 긴장으로 나타날 때 오히려 취업준비행동이 촉진되는데, 이는 고경필(2014)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최인영(2020) 역시, 불안은 진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상관관계 연구에서도 연구결과에 차이가 나타났다. 김홍국(2018)의 연구에서는 특성불안이 낮은 집단의 경우 취업준비행동 전반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제경과 김동일(2004)은 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이 심리적인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였다. 연구에서는 특성불안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보다 취업준비행동 전반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주명진(2010)은 불안의 하위 요인 가운데 하나인 상태불안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상태불안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지는데, 불안수준이 높다고 해서 진로준비행동에 무조건으로 부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천석준과 이기학(2008)은 신경증과 진로탐색행동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정적으로 매개한다고 하였다. 개인이 상태불안을 겪게 되면, 상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로탐색행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민경(2020)은, 한국고용정보원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패널조사의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사용해, 취업불안과 취업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구직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차가 있어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또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적절한 수준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적절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14>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불안→취업준비행동	이제경, 김동일(2004)	-
	서지윤(2008)	+
	김홍국(2018)	+
	정명희(2019)	+
	김봉환(1997)	-
	김경태(2003)	-
	이현주(2009)	-
	주명진(2010)	+
	조혜정, 홍다영(2017)	-
	오민경 외(2017)	+
	최인영(2020)	+

+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 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크게 부모의 학력과 소득, 직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소득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모는 심리적·정서적으로도 자녀의 진로발달을 지원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Schulenberg 외(1984)는 개인의 직업 지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꼽았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개인의 직업가능성을 높이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진미경(1999)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 박완성(2002)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활발하다고 하였다. 유사 진로관련 변

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정적인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서정선(2002)과 이은정, 장윤옥(2008)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원소미(2016)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생 개인의 진로성숙에 정적인 직접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은 진로 관련 변인들에도 부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혜(2006)는 빈곤 가정의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진로태도성숙과 직업포부 수준이 낮음을 확인하였다. 박재은 외(2011) 역시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진로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있다. 박용관(2003)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긍정적인 자아와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는 유의미하지만, 진로성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교육격차로 이어진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이 이루어지면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최대 5배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1a).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소년들은 진로발달 성취가 낮은 것으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노경란, 2011; 김희자, 2008). 원격교육시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영향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소득격차로 인해 교육 기회를 상실하거나 박탈당한다면, 이는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표 II-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준비행동	진미경(1999)	+
	박완성(2002)	+
	서정선(2002)	+
	박용관(2003)	(영향없음)
	이은정, 장윤옥(2008)	+
	원소미(2016)	+
	정지혜(2006)	-
	박재은(2011)	-

+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 다.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교사학생관계는 다양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그 가운데 애착은 진로성숙과 진로탐색효능감 등 다양한 진로 관련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보고되어 왔다(박은선, 2008; 최옥현, 2007; 허균, 2012).

조미형 외(2006)은 교사 애착관계와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3차년도 중2 패널(2006년 조사)을 활용한 연구에서 부모, 친구, 교사와의 애착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애착이, 남학생은 여기에 더해 친구애착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남녀 모두 교사애착이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일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균(2013)의 연구에서 부모애착과 교사애착은 진로탐색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탐색행동에는 진로탐색효능감을 매개로 해 간접적 영향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주 외(2013)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사의



지원, 진로교육만족도,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진로교사의 지원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교육부(2014)가 발표한 중·고등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도 교사와의 관계를 좋게 인식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보통 이상으로 나타났다.

안혜진과 정미경(2015)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로부터 지지를 받는다고 인식하면, 진로계획과 진로성숙도가 높게 나타났고, Zhang 외(2018)는 교사의 지원은 학생의 진로 개발에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한은혜(2017)는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교사의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교사지지와 진로준비행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 교사로부터 지지를 얻는다고 여길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촉진됨을 의미한다.

김근혜와 박진영(2017)은 호텔조리를 전공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16>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교사학생관계 →취업준비행동	주영주 외(2013)	+
	한은혜(2017)	+
	김근혜, 박진영(2017)	(영향없음)
	허균(2013)	(영향없음)
	조미형 외(2006)	+
	안혜진, 정미경(2015)	+
	허균(2013)	+

+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 라. 원격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코로나19 이전의 원격수업에 관한 연구 가운데, 진로나 취업과의 관계를 연구한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원격수업만족도를 대신하여 수업만족도나 전공만족도 등 진로, 취업관련 변인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확인한 결과, 다수의 연구에서 학과만족도나 수업만족도 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등의 진로관련 변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수와 정한결(2012)은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예술경영 수업만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수업만족도 중 교수학습활동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경영 수업만족도가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황지영(2012)은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전공수업몰입 경험이 진로결정자기효능감과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더니,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확인되었는데, 전공수업에서 배운 것들을 스스로 통제해나갈 수 있다고 느낄수록 직업탐색행동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정민주(2014)와 한예정(2014), 김미숙(2015)은 각각 대학생을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현정(2016)은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환경, 교육만족, 자기효능감, 취업행동의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교육만족은 취업행동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희(2016)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취업행동에 부분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최보라와 모화숙(201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효능감, 대학생활적응과 취업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연구한 결과, 각 변인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진로결정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취업준비행동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보람

(2018)은 관광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전공만족도의 모든 하위 요인이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선과 박수진, 안성식(2018)은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명희(2019)도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 취업불안, 취업준비행동의 영향관계 연구에서, 전공만족 중 교과만족은 취업준비행동 요인 가운데 정보탐색활동에, 인식만족과 관계만족, 교과만족은 준비계획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김홍수(2020)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 생활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전공 분야에서 자신감을 얻게되고, 취업에 관련된 장벽을 성공적으로 풀어 나가면서, 취업준비행동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신경섭(2021)은 공업계열 특성화고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전공이나 수업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고 학생의 원격수업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II-17> 원격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수업만족도→취업준비행동	황지영(2012)	+
	정민주(2014)	+
	한예정(2014)	+
	김미숙(2015)	+

	김현정(2016)	+
	황정희(2016)	+
	김보람(2018)	+
	정명희(2019)	+
	금흥수(2020)	+
	신경섭(2021)	+
	이연수, 정한결(2012)	+
	서명선, 박수진, 안성식(2018)	+
	최보라, 모화숙(2018)	

+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 마.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최미진(2021)은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의 취업불안이 전공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전공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들 변인 간의 순차적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직접 검증한 연구가 없기에, 최미진(2021)의 연구와 더불어 유사한 개념의 변인들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앞서 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바(황지영, 2012; 정민주, 2014; 정명희, 2019; 신경섭, 2021) 불안이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정혜진과 최화열(2010)은 커뮤니케이션 불안감과 관광영어교육 전공 학생의 수업만족감 간의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다. 커뮤니케이션 불안감은 학생들의 수업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스피치불안감과 수업불안은 수업만족감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은준(2013)은 불안 인식의 정도에 따라 온라인 수업을 하는 학생을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불안과 수업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불안수준에 대한 인식정도가 낮은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았다. 유영은(2008)은 소집단 협동학습 상황에서 언어불안과 수업만족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적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다.

불안은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표 II-18>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취업불안→전공만족도 →취업준비행동	최미진(2021)	+ (순차적 영향관계)
불안→수업만족도	정혜진, 최화열(2010) 이은준(2013)	- -
수업만족도→취업준비행동	황지영(2012) 정민주(2014) 한예정(2014) 김미숙(2015) 김현정(2016) 황정희(2016) 김보람(2018) 정명희(2019) 금흥수(2020) 신경섭(2021) 이연수, 정한결(2012) 서명선, 박수진, 안성식(2018)	+ + + + + + + + + + +

+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 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원격수업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유정(2015)은 효과적인 수업활동을 위해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는데, 주변환경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독립된 학습공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정연 외(2020)의 조사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의 22.6%가 ‘온라인 수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학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와 안정된 인터넷연결망 등도 필수적이다. 연구대상 10명 중 3명은 ‘기기가 낡아 방해받고 있다(29.3%)’거나 ‘인터넷 속도가 느려 불편을 느꼈다’ (35.9%)고 응답했다.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과 비교해 2~3배나 높은 결과이다.

진미정 외(2021)는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가정 내 스마트기기가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고, 한국미디어패널조사를 이용해 가족 특성에 따른 스마트기기 보유실태를 조사하였다. 스마트 기기의 화면크기에 따라 원격수업 효과에 차이를 보였는데, 저소득층의 경우 비교적 화면 크기가 큰 데스크탑과 노트북 PC의 보유율(66.7%)이 일반국민(83.2%)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1인당 스마트기기 보유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남희 외(2020)의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 가운데 노트북이나 테블릿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일반고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은 특성화고 학생의 가정 경제적 수준이 일반고 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한국교육개발원, 2009;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2017), 이러한 특성이 원격수업 기기의 종류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환경은 학생들의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학업성취는 수업만족도의 지표이기도 한데(박진아, 2012) 이는 학교생활에서 느끼

는 성공감으로 이어지며, 청소년들의 진로선택과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다뤄진다(권은경, 2021). 강호수와 남신동(2020)의 연구에서 온라인 수업 내용이 이해되지 않고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17.1%이었으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46.0%로 나타났다. Coleman 외(1966)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하였다. 이후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학업성취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연구되어 왔으며(김경근, 2005; 오옥환, 2003; 김광혁, 2008; 구인회, 2003; 김경근, 2005; 류방란, 김성식, 2009; 정소희, 2013) 소득 뿐 아니라 부모 학력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임혜정과 이선영(2020)은 가정 배경이 국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부모 학력은 학업성취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는데(김경근, 2005; 방하남, 김기훈, 2002; 현지영, 김경근, 2015), 특히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방하남, 김기훈, 2002; 박창남, 도종수, 2005). 아버지가 집안의 주소득자인 경우가 많고 따라서 가구 소득과 더욱 관련이 높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문정선과 문경숙(2018)은 전북지역 중학생 28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함으로써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김종백, 김준엽, 2009; 김혜연, 2012). 권경림과 구남욱(2019)도 서울교육중단연구를 활용한 연구에서 부모의 자녀학습지원 변화가 학업성취도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원격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

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때(이연수, 정한결, 2012; 정민주, 2014; 한혜정, 2014; 김보람, 201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에 관계에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표 II-19>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부모의 자녀학습지원→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	권경림, 구남욱(2019)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학업성취	오욱환(2003) 구인회(2003) 김경근(2005) 김광혁(2008) 류방란, 김성식(2009) 정소희(2013) 방하남, 김기현(2002) 김경근 (2005) 박창남, 도종수(2005) 현지연, 김경근(2015) 임혜정, 이선영(2020) 김혜연 (2012) 김종백, 김준엽(2009) 문정선, 문경숙(2018) 권경림, 구남욱(2019)	 + + + + + + + + + + + + + + +
학업성취→취업준비행동	최형전(2021)	+
수업만족도→취업준비행동	황지영(2012) 정민주(2014) 한예정(2014) 김미숙(2015) 김현정(2016) 황정희(2016) 김보람(2018)	 + + + + + + +



	정명희(2019)	+
	금흥수(2020)	+
	신경섭(2021)	+
	이연수, 정한결(2012)	+
	서명선, 박수진, 안성식(2018)	+

+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 사.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선행연구는 주로 교사학생관계와 학업성취도 또는 학교만족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조미형 외(2006)의 연구에서 부모, 친구, 교사와의 애착은 진로성숙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애착이, 남학생은 여기에 더해 친구애착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남녀 모두 교사애착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Resnick 외(1997)는 청소년이 교사와 원만한 지지관계를 맺을 때 사회적,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였고, Birch와 Ladd(1997)는 교사학생관계가 학생의 동기와 학업 성취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Painata(1999)는 학생이 교사를 친밀히 여길 때, 학생의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기술 등이 높아진다고 강조하였으며, 교사의 보살핌과 칭찬을 긍정적으로 인지하는 학생은 학교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llinan, 2008).

학생교사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만족감이 커진다는 연구결과는 국내에서도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공인주, 2013; 김진숙, 채선화, 2015). 황여정과 김경근(2006)은 학생교사관계가 학교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높은 효과를 갖는다고 하였다. 문은식과 김충희(2002)는 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인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해 만족한다며 정적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교육품질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영향관계를 연구한 이미숙 외(2010)의 연구에서는 교사가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지원할수록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현지영과 김경근(2015)은 교사에 대한 신뢰가 학업성취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인, 교사학생관계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그러나, 유사변인으로 교사애착이 학교생활적응을 거쳐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었으며(조미형 외, 2006),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교사학생관계는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황여정, 김경근, 2006; 공인주, 2013; 김진숙, 채선화, 2015) 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명희, 2018; 신경섭, 2021; 김현정, 2016). 각 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표 II-20>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구분	관련 선행연구	결과
교사애착→학교생활적응 →진로성숙	조미형 외(2006)	+
교사학생관계→수업만족도	황여정, 김경근(2006)	+
	Hallinan(2008)	+
	공인주(2013)	+
	김진숙, 채선화(2015)	+
	문은식, 김충희(2002)	+
	이미숙 외(2010)	+
	박경인(2010)	+

교사학생관계→학업성취	Resnick 외(1997)	+
	Birch, Ladd(1997)	+
	Painata(1999)	+
	현지영, 김경근(2015)	+
수업만족도→취업준비행동	황지영(2012)	+
	정민주(2014)	+
	한예정(2014)	+
	김미숙(2015)	+
	김현정(2016)	+
	황정희(2016)	+
	김보람(2018)	+
	정명희(2019)	+
	금홍수(2020)	+
	신경섭(2021)	+
	이연수, 정한결(2012)	+
	서명선, 박수진, 안성식(2018)	+

+ : 정적 영향관계

- : 부적 영향관계

### 아. 선행연구 종합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첫째, 불안은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최미진, 2021). 또 다수의 연구에서 불안은 원격수업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정혜진, 최화열, 2010; 이은준, 2013). 원격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격수업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으면 독립적

인 학습공간이나 원격기기 같은 원격수업 환경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지적하고 있다(OECD, 2020; 이정연 외, 2020). 원격수업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면 학습성취를 이루기 어렵다(진미정 외, 2021; 강호수, 남신동, 2020; 김혜진, 2020; 박선호, 최희경, 2020; 박미희, 2020). 특히 부모의 학력은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근, 2005; 방하남, 김기현, 2002; 박창남, 도중수, 2005; 임혜정, 이선영, 2020). 부모가 학습보조를 강화할 때, 자녀의 학업성취가 높아지는데(이은혜, 장인실, 2021; 김경근, 박수용, 2007), 부모의 경제수준과 학력수준 등에 이러한 부모의 학습지원이 더해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원격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리란 짐작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다. 다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토대로(이연수, 정한결, 2012; 정민주, 2014; 한혜정, 2014; 김보람, 201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원격수업만족도를 거쳐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셋째, 교사학생관계는 수업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공인주, 2013; 김진숙, 채선화, 2015; 황여정, 김경근, 2006; 문은식, 김충희, 2002). 한편 선행연구(정명희, 2018; 신경섭, 2021)들은 수업만족도 등이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학생관계가 원격수업만족도를 거쳐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으로 짐작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특성화고에도 원격수업이 본격 도입되었다. 동시에 경제위기로 인해 취업률은 낮아지고 있다. 취업불안과 원격수업으로 인한 고립불안에 코로나19 감염불안이 확산되고, 교육격차는 사회적 문제

로까지 대두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입된 원격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중등교육단계의 원격수업 연구는 주로 사이버가정학습 등을 주제로 이루어졌다(강민경, 2009; 김미량, 김진숙, 2007; 황세원, 2012). 코로나19 이후의 원격수업연구가 확대되는 단계이나, 아직은 교육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진행되는 수준이다(이정연 외, 2020; 정은진, 김남희, 2020; 계보경 외, 2020). 원격수업이 보충수업이 아닌 정규수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중등단계 원격수업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교육격차가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절실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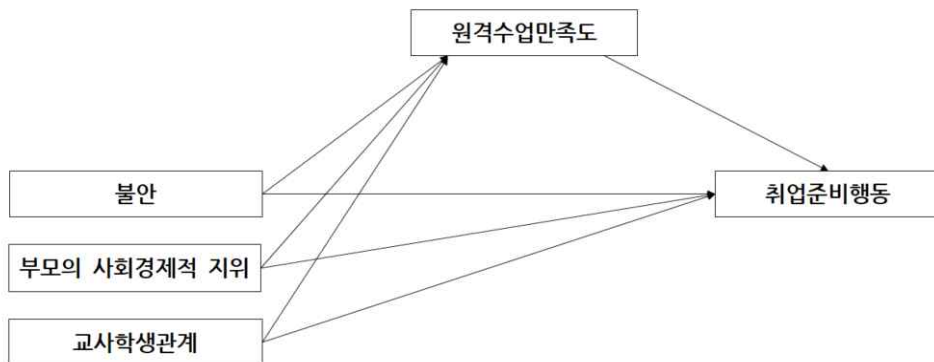
이 연구는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영향관계를 구명하고,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확인된다면, 특성화고에서의 효과적인 원격수업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취업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이 보편교육의 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료된 후에도 고교학점제의 도입과 함께 스마트 교육이 본격화되면서 특성화고에서의 원격교육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실천적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면, 앞으로 원격교육 정책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그림 III-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은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이다. 종속변인은 취업준비행동이며, 매개변인은 원격수업만족도이다.



<그림 III-1> 연구의 모형

## 2. 연구대상

### 가. 모집단

이 연구의 모집단은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들이다.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의 직업교육 특성화고는 모두 464개교이며, 전체 학생 수는 209,574명이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농업계열은 37개교로 학생 수는 11,724명이며, 공업계열은 195개교, 95,179명, 상업계열은 170개교에 학생 수는 80,681명이다. 또 7개 수산 및 해양계열에 1388명, 가사 실업계열 55개 학교에 20,602명이 재학 중이다. 각각의 비율은 1 : 8.1 : 6.8 : 0.1 : 1.7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 94,407명으로 45%를 차지하며, 그 외 비수도권은 115,167명으로 55% 수준이다.

학년별 학생수는 1학년은 모두 69,518명이며, 2학년은 69,732명, 3학년은 70,324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2020학년도의 1학년 학생 수와 2학년 학생 수로 연구대상인 2021학년도 2학년과 3학년 학생 수를 갈음하였다.

<표 Ⅲ-1> 2020학년도 전국 특성화고 학년별 학생 수

구분		학생 수	백분율(%)
학년	1학년	69,518	33.2
	2학년	69,732	33.2
	3학년	70,324	33.6
지역	수도권	94,407	45.0
	비수도권	115,167	55.0

계열	농업계	11,724	5.6
	공업계	95,179	45.4
	상업계	80,681	38.5
	수산·해양계	1,388	0.7
	가사·실업계	20,602	9.8
	합계	209,574	100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21)

## 나. 표집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4년제 대학의 경우 2, 3, 4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2년제 대학의 경우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취업준비행동 관련 선행연구들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도 하나, 이 연구에서는 1학년을 제외하였다. 이 연구가 수행된 시점은 9월로, 1학년의 경우, 특성화고 재학 기간이 1학기 남짓으로 비교적 짧은데다, 특성화고 1학년은 보통교과 수업의 비중이 크고, 전문교과 수업이라 해도 이론 수업이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 본격적인 취업준비가 시작되지 않은 학년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주요 분석방법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중다회귀분석에서 표본 크기는 일반적으로 독립변인의 20배 수준이 권장된다 (Tabachnick, Fidell, 2007). 사회과학에서는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300명 이상의 표본이 요구된다. 또한 회귀분석에서는 적어도 100개 이상의 표본이 필요하다. 모집단 규모가 1,000,000명을 넘을 때 적절한 표본 크기로 384명을, 또 75,000명일 때는 382명을 제안한다 (Krejcie, Morgan, 1970).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모집단을 대표할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지만, 표본이 너무 많으면 변인 간 중다상관이 과대평가되어 실제 효과가 없는 독립변인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에서는 최소수준에서 표본크기를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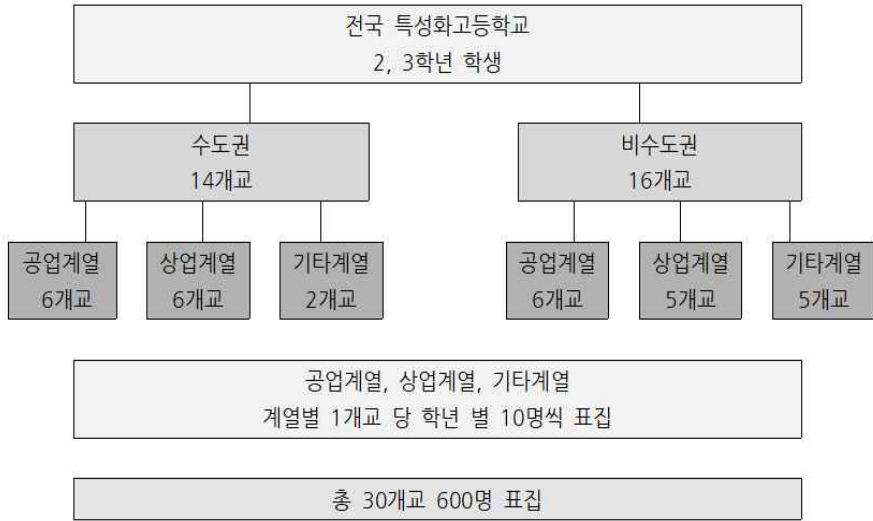


이 바람직하다(김선근, 2017).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 검증에 필요한 표본 크기와 회수율, 그리고 불성실한 응답 등을 고려하여 목표 표집 수를 600부로 하였다. 표집은 전국의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별 학생 수 비율에 따라 층화군집비율표집을 실시하였다. 층화군집비율표집은 특정 기준에 따라 모집단을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고, 이 군집의 빈도에 따라 무작위로 일정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표본이 편중되는 단점을 보완하고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이훈영, 2008). 분석의 추정을 위해 가장 상위 단계인 학교는 적어도 30개 이상의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별로는 5개 이상의 표본을 확보해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윤지영, 2016). 이에 따라 전국의 특성화고를 지역별 학교 수 비율에 따라 1 : 1.2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고, 수도권 14개교에 280명, 비수도권 16개교에 320명으로 모두 30개교에 600명을 할당하였다.

또한, 계열에 따라서도 학생 수 비율을 구성하였다. 농업계열이 5.6%, 공업계열이 45.4%, 상업계열이 38.5%, 가사 및 실업계열이 9.8%, 수산 및 해양계열이 0.7%로 각각의 비율은 1 : 8.1 : 6.8 : 0.1 : 1.7 수준이다. 이때 학생 수가 적은 농업계열과 가사 및 실업계열, 수산 및 해양계열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역별로 할당된 학생 수를 계열별로 다시 할당하였다. 수도권에서는 공업계고와 상업계고, 기타계열 특성화고의 비율이 대략 5 : 5 : 1이며, 비수도권의 경우 1.3 : 1.1 : 1의 비율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수도권에서는 공업계열고 6개교, 상업계열고 6개교, 기타계열 고등학교 2개교로 총 14개교를 선정하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업계열고 6개교, 상업계열고 5개교, 기타 계열 고등학교는 5개교로 모두 16개교를 선정하였다.

이들 각 학교에서 2학년과 3학년 학생 각 10명씩 설문하기로 하고, 회수율을 고려하여 30개교에 설문지를 20부씩 배부하였다.



〈그림 Ⅲ-2〉 층화군집표집 과정

### 3. 측정도구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종속변인인 취업준비행동, 독립변인인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매개변인인 원격수업만족도와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포함하여 모두 8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제외한 다른 설문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조사도구는 선행연구에서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과 대상에 맞게 일부 문항과 척도를 수정하였으며, 변인별 하위요인과 문항 수, 문항번호는 다음과 같다.

<표 III-2> 측정도구(설문지) 구성

변인	구분		문항 수	문항번호	척도	출처
종속변인	취업 준비 행동	정보수집활동	23	I. 1-9	5	신경섭 (2021)
		교외활동		I. 15-21		
		구체적 노력		I. 10-14, 22,23		
독립변인	불안	상태불안	20	II. 1-20	5	한덕웅 외 (1993)
	부모의 사회경제 적 지위	아버지의 학력	5	V. 6	-	-
		어미의 학력		V. 7		
		가구 월 수입		V. 8		
	교사 학생 관계	이해공감	21	III. 1-6	5	김희정 (2012)
		친밀감		III. 7-11		
신뢰감		III. 12-14				
존중감		III. 15-17				
유능감		III. 18-21				
매개변인	원격 수업 만족도	상호작용	15	IV. 1-4	5	김효겸 (2021)
		콘텐츠		IV. 5-8		
		시스템		IV. 9-11		
		학습성과		IV. 12-15		
인구 통계학적 문항	학년, 성별, 학교소재지, 학교계열		4	V. 1-4	-	-
합계			86			

### 가. 취업준비행동 측정도구

취업준비행동을 다룬 연구 대부분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측정도구 역시 대학생에 맞게 개발되어왔다.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연구한 신경섭(2021)과 김성식(2020), 홍성표(2016) 등의 도구를 분석한 결과, 신경섭(2021)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사용하였다. 신경섭(2021)의 도구는 김효진(2011)의 도구에서 진로 관련 내용을 취업 관련 내용으로 수정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조사하는 도구로 수정하였으며, 정보 수집 활동, 교외활동, 구체적 노력의 3개 하위 요인과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  $\alpha$ 는 정보수집활동 .913, 교외활동 .922, 구체적 노력 .877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업준비행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하여, 15, 19, 20번 문항에 한해 온라인 활동을 명시하여 수정하였다. Cronbach  $\alpha$ 는 정보수집활동 .884, 교외활동 .837, 구체적 노력 .816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3> 취업준비행동의 내적일치도 계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alpha$ )	
	예비조사(n=89)	본조사(n=554)
취업준비행동	.920	.922
정보수집활동	.886	.884
교외활동	.821	.837
구체적 노력	.796	.816

## 나. 불안 측정도구

불안 측정은 Spielberger, Grosuch 및 Lushene(1970)이 개발한 상태-특성불안 검사(State-TraitAnxiety Inventory:STAI)를 한덕웅과 이창호, 탁진국(1993)이 표준화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태불안이란 개인이 지금의 상황이 위협적이라고 여길수록 더 불안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며 특성불안은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성향에 따른 불안을 의미한다.

상태-특성불안 검사는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이 각각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10문항(1, 2, 5, 8, 10, 11, 15, 16, 19, 20)은 역채점하였다.

한덕웅 외(1993)의 연구는 특성불안 척도의 Cronbach  $\alpha$ 를 .89, 상태불안을 .93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경험하는 불안이 코로나19라는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상태불안을 측정하는 문항만 사용하였다. 또한 원 도구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른 문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변경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928로 확인되었다.

<표 III-4> 불안의 내적일치도 계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alpha$ )	
	예비조사(n=89)	본조사(n=554)
불안	.907	.928
상태불안	.907	.928

#### 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백순근, 박경인, 2010)를 검토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위요인으로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구의 월 수입을 설정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상의 5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학력은 재학연한으로 변환해 통계에 사용하였으며,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는 6년, 중학교 졸업은 9년, 고등학교 졸업은 12년,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은 16년, 대학원 졸업은 18년으로 하였다. 가구의 월 수입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400-500만원, 500-600만원, 600만원 이상의 5가지로 구분하여 총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소득금액은 통계청(2021)의 2020년 3/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금액인 5,035,000원을 기준으로 구성하였다. 가구의 월 수입은 다시 300만원 미만을 3점으로 하여, 600만원 이상 7점까지로 점수화하였다(백순근, 박경인, 2010).

각 하위요인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변인으로 구성하였다(박수익, 2011).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구의 월 수입을 각각 표준화하여 합산 점수를 구하고 이를 단일 측정치로 사용하였다(허아정, 2021; 김영도 외, 2021; Kraus 외, 2009; Cohen 외, 2006)

## 라. 교사학생관계 측정도구

교사학생관계는 김희정(2012)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김희정은 지은립 등(2003)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척도를 중·고등학생에게 적합하도록 문장을 수정 보완하였다. 하위요인은 모두 5개로, 이해공감 6문항, 친밀감 5문항, 신뢰감과 존중감이 각 3문항, 유능감이 4문항이며 모두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ronbach  $\alpha$ 는 .959이며, 요인별로는 이해공감이 .940, 친밀감이 .885, 신뢰감 .742, 존중감 .862, 유능감이 .853이다.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들이 교사학생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이해공감 .958, 친밀감 .945, 신뢰감 .865, 존중감 .899, 유능감 .911로 확인되었다.

<표 III-5> 교사학생관계의 내적일치도 계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alpha$ )	
	예비조사(n=89)	본조사(n=554)
교사학생관계	.977	.979
이해공감	.956	.958
친밀감	.952	.945
신뢰감	.845	.865
존중감	.891	.899
유능감	.905	.911

#### 마. 원격수업만족도 측정도구

이 연구에서는 원격수업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김효겸(2021)의 도구를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김효겸(2021)의 전문교과 원격수업만족도 조사는 상호작용, 콘텐츠, 시스템, 학습성과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상호작용 영역은 교과 교사의 정보 안내, 학습관리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콘텐츠 영역은 원격수업의 분량, 난이도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시스템 영역은 학교에서 제시한 원격수업을 위한 사이트, 플랫폼으로의 이용성, 접속 용이성 등을 묻는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성과 영역은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한 전문교과의 지식, 직무능력의 습득을 묻는 등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김효겸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968이며, 상호작용 요인이 .896, 콘텐츠 요인이 .926, 시스템 요인이 .865, 학습성과 요인이 .957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김효겸(2021)의 문항 중 콘텐츠 요인을 묻는 문항 가운데 ‘원격수업으로 학습하는 전문교과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를 ‘원격수업의 실습은 대면실습 수업 유사하다’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이 문항은 박현정(2020)의 연구를 검토하여 수정 활용하였다. 또한 원격수업 플랫폼은 EBS 온라인클래스와 밴드, 줌 등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명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상호작용 요인이 .852, 콘텐츠 요인이 .868, 시스템 요인이 .854, 학습성과 요인이 .932로 확인되었다.



<표 III-6> 원격수업만족도의 내적일치도 계수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 $\alpha$ )	
	예비조사(n=89)	본조사(n=554 )
원격수업만족도	0.939	.943
상호작용	0.817	.852
콘텐츠	0.888	.868
시스템	0.903	.854
학습성과	0.934	.932

#### 4. 자료수집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먼저 예비조사는 2021년 10월 7일부터 2021년 10월 15일까지 진행하였다. 수도권 특성화고 공업계고 1곳과 상업계고 1곳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 당 50부씩 모두 100부를 배부하였다.

본조사는 예비조사를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한 후 진행하였다. 본조사는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목표 수집수를 600부로 하여 계열별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수도권에서는 공업계열고 6개교, 상업계열고 6개교, 기타계열 고등학교 2개교로 총 14개교를, 비수도권에서는 공업계열고 6개교, 상업계열고 5개교, 기타계열 고등학교는 5개교로 모두 16개교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또는 우편조사로 진행하였다. 모두 30개교에 대해 설문지를 20부씩 배부하였다.

각 학교의 담당교사에게는 사전연락을 통해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조사 과정에 협조를 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가운데 무응답과 중복응답, 또 모든 문항의 답을 똑같이 응답한 경우 등 불성실한 설문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목표 부수 600부 가운데, 580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26부를 제외하고, 554부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7>과 같다. 학년별로는 2학년(51.6%)이 3학년(48.4%)보다, 성별로는 여학생(56.1%)이 남학생(43.9%)보다 많았다. 학교소재지는 수도권이 46.2%를 차지하였으며, 비수도권은 53.8%로 나타났다. 계열별로는 공업계열이 42.1%, 상업계열이 44.2%이며, 기타 농업계열과 수산해양계열, 가사계열을 합해 13.7%로 나타났다.

<표 III-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학년	2학년	286	51.6
	3학년	268	48.4
성별	남자	243	43.9
	여자	311	56.1
학교 소재지	수도권	256	46.2
	비수도권	298	53.8
학교 계열	공업계열	233	42.1
	상업계열	245	44.2
	기타 (농/수산·해양/가사·실업계열)	76	13.7
합계		554	100

## 5.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평균, 백분율)분석, 내적일치도 분석, 상관분석 및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서는 Hayes(2013)가 개발한 SPSS 매크로 프로그램인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사회과학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수준을 일반적으로 .05로 설정한다. 본 연구에서도 .05로 설정하였으며, 연구가설에 따른 통계기법은 <표 III-8> 과 같다.

<표 III-8> 연구가설별 통계기법

구분	연구목표	통계분석방법
기초통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설문문항	설문문항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내적일치도 분석
일반통계량	연구변인들의 일반통계량	최댓값, 최소값 빈도, 상관분석, 평균, 표준편차, t검증, F검증
연구가설 1	<p>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1-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1-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1-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1-4. 특성화고 학생의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p>	중다회귀분석

<p>연구가설 2</p>	<p>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2-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2-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2-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p>	<p>간접효과 유의성 검정 (부트스트래핑)</p>
---------------	-----------------------------------------------------------------------------------------------------------------------------------------------------------------------------------------------------------------------------------------------------------------------------------	---------------------------------

이 연구에서 사용한 주요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적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둘째,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를 통해 내적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변인들의 일반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량을 활용하였고, 개인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활용하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학자에 따라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Davis(1971)가 제시한 상관분석 기준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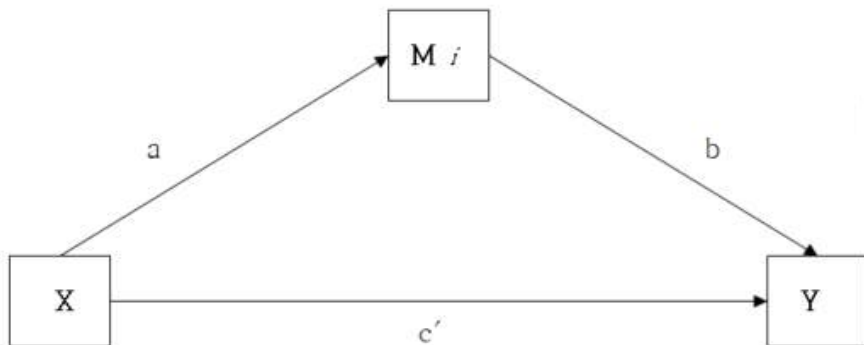
<표 III-9> 피어슨 상관계수의 상관정도 판단기준

r	상관정도 판단
1.00	완전한 상관(perfect)
0.70~0.99	매우 높은 상관(very high)
0.50~0.69	높은 상관(substantial)
0.30~0.49	중간 상관(moderate)
0.10~0.29	낮은 상관(low)
0.01~0.09	매우 낮은 상관(negligible)

출처 : Davis, J. A.(1971).

넷째,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다섯째,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Hayes(2013)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였다.



<그림III-3> Hayes(2013)의 PROCESS macro model 4 개념도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검증방법인 Sobel 검정은 검정력이 낮아 간접효과를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트스트래핑은 매개효과의 직접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또 변인의 분포나 추정치의 표본분포에 대한 가정을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Preacher & Hayes, 2004). 부트스트래핑 가설검정은 신뢰구간을 이용하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트스트랩의 샘플링은 5,000개로 지정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연구변인 일반통계량

#### 가. 연구변인의 기술통계량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 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수준을 구명하기 위하여 먼저 각 독립변인의 측정변인인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기술적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취업준비행동의 평균은 3.4148이며, 표준편차는 .73532,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5.00이다. 원격수업만족도의 평균은 3.4893, 표준편차는 .82140이며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5.00이다. 불안의 평균은 2.7847이며 표준편차는 .75951이다.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5.00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을 교육연한으로 환산한 뒤 점수를 부여하였다. 가구의 월 수입은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300만원 미만을 3점으로, 600만원 이상은 7점으로 점수화하였다(백순근, 박경인, 2010). 이후 하위요인의 영향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각각 표준화하여 합산 점수를 구하고 이를 단일 측정치로 사용하였다(허아정, 2021; 김영도 외, 2021; Kraus 외, 2009; Cohen 외, 2006). 그 결과 평균은 0, 표준편차는 2.26467, 최소값은 -8.33, 최대값은 4.95로 나타났다. 교사학생관계의 평균은 3.8804이며, 표준편차는 .81844이다.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5.00으로 나타났다.



<표 IV-1> 연구변인의 기술적 통계량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취업준비행동	3.4148	.73532	1.00	5.00	-.198	.111
원격수업만족도	3.4893	.82140	1.00	5.00	-.039	-.378
불안	2.7847	.75951	1.00	5.00	.070	.045
부모의사회경제적지위	0	2.26467	-8.33	4.95	-.082	-.316
아버지의 학력	0	1	-3.40735	1.76553	-.133	-.823
어머니의 학력	0	1	-3.32073	1.78714	-.195	-.414
가구의 월수입	0	1	-1.60175	1.39865	-.052	-1.087
교사학생관계	3.8804	.81844	1.00	5.00	-.664	.550

n=554

#### 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평균 차이

학년, 성별, 학교소재지, 학교계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여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년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5$ ), 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학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평균차이
학년	2학년	286	3.3197	.72804	-3.230**	-.20022
	3학년	268	3.5182	.73029		

\*\*\*  $p < .001$  \*\* $p < .01$  \* $p < .05$

성별에 따른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성별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평균차이
성별	남	243	3.3563	.79161	-1.657	-.10416
	여	311	3.4605	.68598		

\*\*\*  $p<.001$  \*\* $p<.01$  \* $p<.05$

학교소재지에 따른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학교소재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 결과는 <표 IV-4>과 같다.

<표 IV-4> 학교소재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	평균차이
학교소재지	수도권	256	3.4303	.71784	.943	.07152
	비수도권	298	3.3588	.79599		

\*\*\*  $p<.001$  \*\* $p<.01$  \* $p<.05$

학교계열에 따른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F검정을 실시하였다. 계열별 평균을 보면, 공업계열이 3.4254, 상업계열이 3.4049, 농업과 수산·해양계열, 가사·실업계열을 묶은 기타계열이 3.4144로 나타났다. F검정 결과 통계적 차이는 .046( $p>.05$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학교소재지에 따른 취업준비행동의 평균 차이 검정 결과

개인적 특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5
학교계열	공업계열	233	3.4254	.73660	.046					
	상업계열	245	3.4049	.73731						
	기타	76	3.4144	.73422						

\*\*\* p<.001 \*\*p<.01 \*p<.05

#### 다.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상관관계는 <표 IV-6> 같다.

중속변인인 취업준비행동은 원격수업만족도,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행동과 원격수업만족도( $r=.367$ )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중간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r=-.111$ )은 .01 수준에서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취업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 $r=.142$ ), 교사학생관계( $r=.291$ )도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년은 ( $r=-.136$ )은 .01 수준에서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의 매개변인인 원격수업만족도는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원격수업만족도와 불안은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낮은 부적 상관관계를( $r=-.281$ ), 원격수업만족도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r=.179$ )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원격수업만족도와 교사학생관계는 중간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436$ ).

<표 IV-6> 통제변인 및 취업준비행동, 원격수업만족도,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교사학생관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	취업준비행동	1																				
2	정보수집활동	.826**	1																			
3	교외활동	.866**	.513**	1																		
4	구체적 노력	.904**	.690**	.672**	1																	
5	원격수업만족도	.367**	.269**	.330**	.348**	1																
6	상호작용	.399**	.328**	.334**	.375**	.806**	1															
7	콘텐츠	.340**	.254**	.294**	.332**	.913**	.709**	1														
8	시스템	.231**	.205**	.185**	.212**	.804**	.470**	.653**	1													
9	학습성과	.301**	.160**	.318**	.286**	.895**	.633**	.762**	.623**	1												
10	불안	-.111**	-.162**	-.005	-.143**	-.281**	-.203**	-.310**	-.233**	-.216**	1											
11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142**	.106*	.134**	.125**	.179**	.187**	.154**	.143**	.138**	-.151**	1										
12	아버지의 학력	.134**	.107*	.128**	.111**	.119**	.171**	.086*	.090*	.076	-.084*	.786**	1									
13	어머니의 학력	.149**	.106*	.142**	.136**	.175**	.198**	.155**	.120**	.134**	-.087*	.800**	.527**	1								
14	가구의 월 수입	.037	.027	.032	.037	.112**	.054	.109*	.115**	.103*	-.170**	.679**	.253**	.284**	1							
15	교사학생관계	.291**	.251**	.227**	.283**	.463**	.518**	.406**	.361**	.328**	-.212**	.070	.034	.060	.064	1						
16	이해공감	.316**	.263**	.264**	.296**	.442**	.481**	.391**	.340**	.326**	-.216**	.054	.019	.034	.070	.929**	1					
17	친밀감	.249**	.229**	.182**	.242**	.388**	.449**	.358**	.288**	.262**	-.212**	.084*	.033	.055	.101*	.940**	.855**	1				
18	신뢰감	.257**	.221**	.196**	.256**	.455**	.498**	.401**	.366**	.320**	-.196**	.047	.021	.055	.031	.929**	.803**	.848**	1			
19	존중감	.248**	.214**	.181**	.255**	.378**	.421**	.328**	.320**	.249**	-.163**	.074	.060	.059	.049	.919**	.810**	.841**	.833**	1		
20	유능감	.275**	.233**	.225**	.260**	.481**	.552**	.404**	.359**	.359**	-.192**	.064	.027	.076	.041	.918**	.828**	.806**	.829**	.792**	1	
21	학년	-.136**	-.108**	-.167**	-.069	-.017	-.034	-.066	.073	-.031	-.033	-.005	-.004	-.026	.020	-.021	-.014	-.056	.015	.014	-.051	1

\*\*\* p<.001, \*\*p<.01, \*p<.05

## 라. 연구변인의 다중공선성 검증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다중공선성은 회귀분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가정 중 하나이다. 다중공선성은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필요 이상으로 높을 때 중복된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있으면, 개별 독립변인의 변량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져 회귀계수의 비교가 불가능해진다. 이 연구에서는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을 위해 공차한계(tolerance)와 변량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활용하였다. 공차한계는 독립변인에 대한 다른 독립변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 $R^2$ )를 1에서 뺀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또 변량팽창계수(VIF)는 공차한계의 역수로,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박은규, 2015).

이 연구에서 다중공선성은 <표 IV-7>과 같다. 공차한계(tolerance)는 .736~.956로, 변량팽창계수(VIF)는 1.046~1.359으로 모두 정상적인 값으로 측정되어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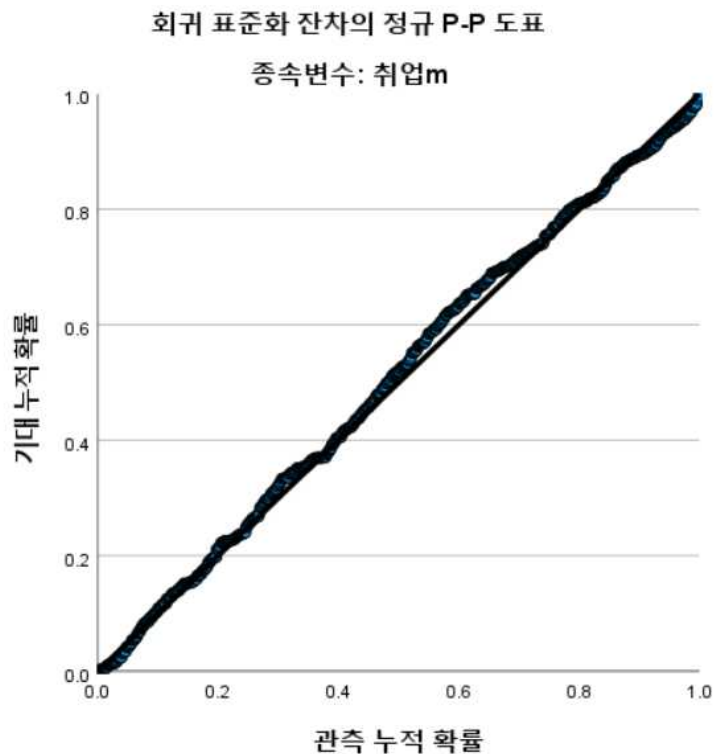
<표 IV-7>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진단

종속변인	독립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취업준비 행동	원격수업만족도	.736	1.359
	불안	.900	1.1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956	1.046
	교사학생관계	.778	1.285

#### 마. 정규성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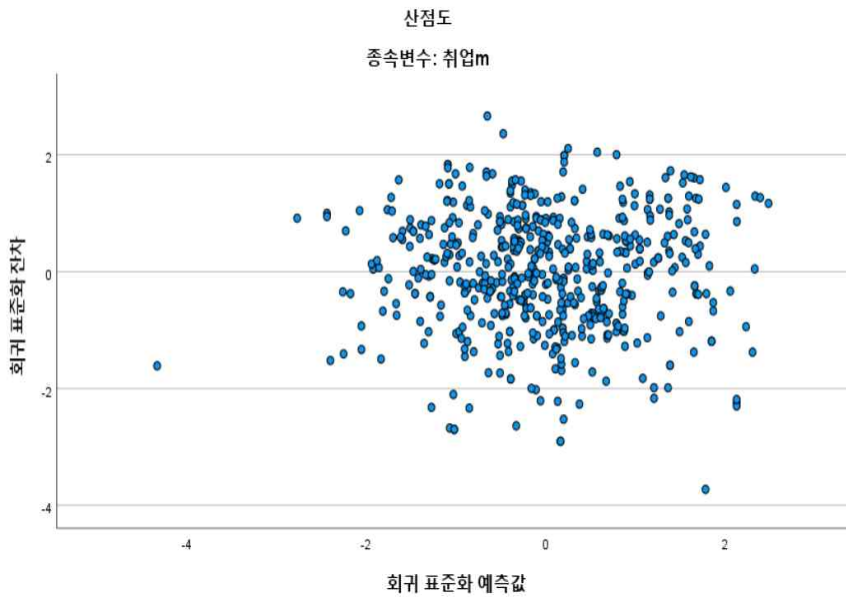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토하였다.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은 첫째, 종속변인이 양적변수여야 한다. 둘째, 정규분포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잔차의 등분산성과 선형성 그리고 상호독립성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응답치가 정규확률도표의 정규성 선상에 있어, 응답자의 취업준비행동의 수준이 정규분포를 가정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림 IV-1> 취업준비행동의 정규성 검증(P-P plot)

산점도를 통해 잔차의 등분산성을 확인하였다. 산점도 분석 결과,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퍼져있어 등분산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IV-2] 취업준비행동의 등분산성 검증을 위한 표준화 잔차의 산점도

잔차 간의 상호 독립성을 확인하고자 Durbin-Watson 통계값을 확인하였다. 통계값이 0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가, 4에 가까우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2에 가까울수록 상호 독립적인 변인들로 구성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Durbin-Watson 값이 2.008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상호 독립성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영향관계

연구가설 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4. 특성화고 학생의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원격수업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변인 가운데 학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인을 1단계에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모든 변인을 함께 투입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통제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F값은 10.433( $p < .01$ )로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량은 .019로 나타났다.

모형2는 모형1에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한 모형으로 설명량은 .157 증가하였다( $p < .001$ ).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p > .05$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유의수준 .05 수준에



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학생관계와 원격수업만족도는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8>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회귀분석

구분		취업준비행동			
		모형1		모형2	
모형		$\beta$	t	$\beta$	t
(상수)			78.992		9.399
통제변인	학년	-.136**	-3.230	-.128**	-3.286
독립변인	불안			.009	.2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081*	2.046
	교사학생관계			.154***	3.510
매개변인	원격수업만족도			.281***	6.219
$R^2$ (adj $R^2$ )		.019(.017)		.176(.168)	
$\Delta R^2$				.157	
F		10.433**		23.393***	

\*\*\*p<.001 \*\*p<.01 \*p<.05

계수는 표준화계수임

### 3.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2.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사학생 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해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취업준비행동을 종속변인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를 X변수로 설정하고,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추정치를 산출하였다. 이어서 각 독립변인을 개별 X변수로 투입해,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독립변인의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총 효과를 각각 산출하였다. 유의수준은 .05로, 부트스트래핑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이때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에 0이 포함하지 않을 경우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를 X변수로, 원격수업만족도를 M변수로 설정하고 학년을 통제한 후 취업준비행동의 경로계수의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는 <표 IV-9>과 같다. F값은 23.3939( $p < .001$ )로,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9>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모형		원격수업만족도				취업준비행동			
		coeff	se	LLCI	ULCI	coeff	se	LLCI	ULCI
(상수)		2.4024***	2.4024	1.9925	2.8123	2.0723***	.2205	1.6392	2.5054
통제 변인	학년	-.0222	.0602	-.1404	.0960	-.1875**	.0571	-.2996	-.0754
불안		-.1884***	.0409	-.2688	-.1080	.0083	.0396	-.0694	.0861
부모의사회경 제적지위		.0450***	.0134	.0186	.0714	.0263*	.0129	.0011	.0516
교사학생관계		.4183***	.0376	.3443	.4922	.1386***	.0395	.0610	.2162
원격수업만족도						.2517***	.0405	.1722	.3312
R		.5140				.4194			
R <sup>2</sup>		.2642				.1759			
F		49.2690***				23.3939***			

\*\*\*p<.001 \*\*p<.01 \*p<.05

불안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표 IV-10>과 같다.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불안의 직접효과와 총효과는 부트스트래핑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를 통한 불안의 간접효과(ab=-.0474)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취업준비행동과 불안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V-10>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유의수준

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LLCI, ULCI)	(LLCI, ULCI)	(LLCI, ULCI)
불안	.0083	-.0474	-.0391
	(-.0694, .0861)	(-.0753, -.0224)	(-.1179, .0398)

\*\*\*p<.001 \*\*p<.01 \*p<.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표 IV-11>와 같다.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직접효과( $c' = .0263$ )와 취업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를 통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간접효과( $ab = .0113$ )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총 효과( $c = .0377$ )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취업준비행동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는 부분매개한다고 할 수 있다.

<표 IV-11>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유의수준

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LLCI, ULCI)	(LLCI, ULCI)	(LLCI, ULCI)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	.0263*	.0113	.0377**
	(.0011, .0516)	(.0040, .0201)	(.0118, .0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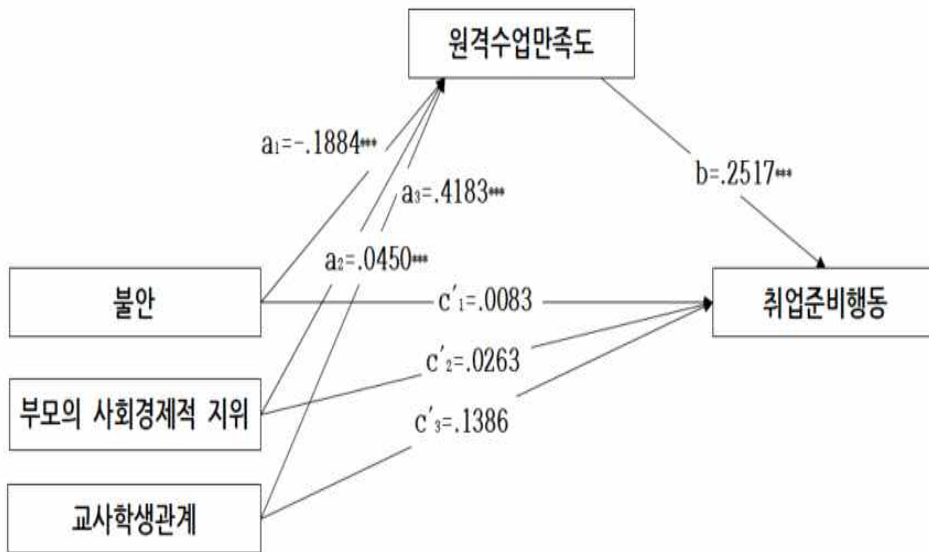
\*\*\* $p < .001$  \*\* $p < .01$  \* $p < .05$

교사학생관계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모형에서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표 IV-12>와 같다.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교사학생관계의 직접효과( $c' = .1386$ )와 취업준비행동과 교사학생관계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를 통한 교사학생관계의 간접효과( $ab = .1053$ )와 총 효과( $c = .24397$ )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취업준비행동과 교사학생관계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V-12>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와 유의수준

모형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LLCI, ULCI)	(LLCI, ULCI)	(LLCI, ULCI)
교사학생관계	.1386***	.1053	.2439***
	(.0610, .2162)	(.0651, .1495)	(.1714, .3164)

\*\*\*p<.001 \*\*p<.01 \*p<.05



<그림 IV-3>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지금까지 검증한 연구가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IV-13>와 같다.

<표 IV-13>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

연구가설		검증결과
가설 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X
1-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1-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1-4	특성화고 학생의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O
가설 2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완전매개
2-2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매개
2-3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분매개

## 4. 논의

### 가.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 격수업만족도의 영향관계

연구가설 1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취업준비행동의 수준이 달라짐을 확인하고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원격수업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회귀분석으로 구명하였다.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가정한 연구가설 1-1은 채택되지 않았다. 불안이 취업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가 있는 반면(김봉환, 1997; 김경태, 2003; 이현주, 2009; 조혜정, 홍다영, 2017), 다른 연구는 취업불안이 적당한 긴장으로 나타날 때 오히려 취업준비행동이 촉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서지윤, 2008; 오민경 외, 2007; 정명희, 2019; 최인영, 2020). 이 연구에서는 영향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일치된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른 변인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이들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취업은 당면한 문제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경제위기와 함께 너 나 할 것 없이 취업난에 내몰렸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무력감과 자조감 속에 지금의 불안상태를 적극적인 취업행동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취업을 대신해 대학진학을 선택함으로써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영향관계가 희석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과의 유의한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다( $\beta = .081, p < .05$ ). 따라서 연구가설 1-2는 채택되었다. 박용관(2003)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지만, 선행연구의 다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하였다(진미경, 1999; 박완성, 2002; 서정선, 2002; 정지혜, 2006; 박재은, 2011).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의미한다.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그 자체로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지 못했다. 김근영과 곽금주(2015)가 학술지 ‘청소년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한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언급한 215편의 논문 가운데 이를 독립변인으로 다룬 연구는 43편으로 20% 수준에 그쳤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교육격차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통제변인이 아닌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더 활발져야함을 의미한다.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154, p < .001$ ). 따라서 연구가설 1-3은 채택되었다. 이는 학생이 교사를 친밀하게 느끼고 믿을 수 있고 유능하다고 여길수록 취업준비행동이 더 활발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지지나 지원, 애착 등이 커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촉진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조미형 외, 2006; 한은혜, 2017).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동시에 교사학생관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는 상담을 확대하는 등 학생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81, p < .001$ ). 이로써 연구가설 1-4는 채택되었다. 이는 특성화고에서 시행되는 실습중심의 전문교과 원격수업이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할수록 취업준비행동이 활발해짐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대



면수업에서의 수업만족도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황지영, 2012; 정민주, 2014; 한예정, 2014; 김미숙, 2015; 김현정, 2016; 황정희, 2016; 김보람, 2018; 정명희, 2019; 금홍수, 2020; 신경섭, 2021)와 일치한다. 또한 특성화고 학생들의 원격수업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원격수업만족도의 효과로 취업준비행동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

연구가설 2에 따라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을 위하여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원격수업만족도를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구명하였다.

원격수업만족도는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원격수업만족도를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0474). 불안이 높을수록 원격수업만족도가 낮고, 낮아진 원격수업만족도는 다시 취업준비행동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는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취업준비행동에 대한 불안과 원격수업만족도의 순차적 영향을 고려하여 특성화고 학생들의 불안을 낮추고 원격수업만족도를 높이는 현장의 노력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0113).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

격수업만족도를 증가시키며,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을 증가시키므로써, 결과적으로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단 원격수업에 필요한 기기와 인터넷 같은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최대 5배 벌어진 데서 보듯(교육부, 2021a)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학습지원을 통해 자녀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문정선, 문경숙, 2018; 김종백, 김준엽, 2009; 김혜연, 2012), 따라서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에 따른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개인 간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대해 교사학생관계는 유의한 영향(.1386)을 미치며, 원격수업만족도를 통해 유의한 간접효과(.1053)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원격수업만족도는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학생관계가 좋으면 원격수업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는 취업준비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교사학생관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원격수업만족도가 중요한 매개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순차적 영향관계는 교사학생관계가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황여정, 김경근, 2006; 공인주, 2013; 김진숙, 채선화, 2015) 수업만족도는 또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정명희, 2018; 신경섭, 2020)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다. 특성화고에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특히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고교학점제의 시행으로 특성화고에서는 플립러닝 등 다양한 형태의 원격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수업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교사는 학생과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현장감이 떨어지는 원격수업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과 더욱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진모 외, 2020).

구명된 간접효과를 종합하면,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모두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계층이동을 위한 유력한 사다리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부모는 자녀교육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기회가 늘어나고, 교육만족도와 성취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계층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수 있다(현지영 외 2015). 따라서, 학생들이 물리적,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 V. 요약, 결론 및 제언

###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영향 관계를 구명하였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원격수업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구명하였다.

이 연구의 가설은,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성화고 학생의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등으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의 모집단은 국내 특성화고 학생 전체이다. 2020학년도를 기준으로 전국의 직업교육 특성화고는 모두 464개교이며, 학생 수는

209,574명이다. 이 가운데 2021년 현재 각각 2학년과 3학년인 2020년 기준 1학년 학생은 모두 69,518명이며, 2학년 학생은 69,732명이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1년 이상 원격수업을 경험한 2, 3학년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전국의 특성화고를 지역별, 계열별 학교 수 비율에 따라 나누고, 수도권에서는 공업계열고 6개교, 상업계열고 6개교, 기타계열 고등학교 2개교로 총 14개교를, 비수도권에서는 공업계열고 6개교, 상업계열고 5개교, 기타계열 고등학교는 5개교로 모두 16개교를 선정한 후, 학생 600명을 표본 집단으로 정하였다. 조사도구는 취업준비행동, 원격수업만족도,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일반적 특성 변인의 여섯 가지로 구성된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취업준비행동은 23문항, 원격수업만족도는 15문항, 불안은 20문항, 교사학생관계는 21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하위요인인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 가구의 월 수입을 묻는 3문항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4문항을 더해 모두 8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특성화고 교사 3인으로부터 안면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89부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수도권 일부 학교는 연구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였고, 그 외 학교는 우편을 통해 설문을 수행하였다. 목표 부수 600부 가운데, 580부가 수집되었으며, 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26부를 제외하고, 554부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유효자료율은 95.5%였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통계분석방법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사용하였다. 또한 각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영향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고, 매개효과 확인을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를 사용하였다. 추리통계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05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beta =.081, p<.05$ ), 교사학생관계 역시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친다( $\beta =.154, p<.001$ ). 원격수업만족도도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 $\beta =.281, p<.001$ ).

둘째, 원격수업만족도는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원격수업만족도를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친다(0.0474).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0113)와 교사학생관계(.1053)는 원격수업만족도를 통해 취업준비행동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 및 원격수업만족도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는 불안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불안이 취업준비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있는 반면(김봉환, 1997; 김경태, 2003; 이현주, 2009; 조혜정, 홍다영, 2017), 서지윤(2008), 오민경 외(2017), 정명희(2019), 최인영(2020) 등은 불안이 적당한 긴장으로 나타날 때 오히려 취업준비행동이 촉진된다고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포함해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른 변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취업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관

(2003)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선행연구의 다수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취업준비행동 간의 유의한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진미경, 1999; 박완성, 2002; 서정선, 2002; 정지혜, 2006; 박재은, 2011). 교사학생관계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지지나 지원, 애착 등이 커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이 촉진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조미형 외, 2006; 한은혜, 2017).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동시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사학생관계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면수업에서의 수업만족도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황지영, 2012; 정민주, 2014; 한예정, 2014; 김미숙, 2015; 김현정, 2016; 황정희, 2016; 김보람, 2018; 정명희, 2019; 김홍수, 2020; 신경섭, 2021)와 일치한다. 또한 원격수업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원격수업만족도의 효과로 취업준비행동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결국,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와 원격수업만족도 가운데 원격수업만족도는 취업준비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불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사학생관계는 원격수업만족도를 경유하여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취업준비행동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 불안이 높을수록 원격수업만족도가 낮고, 낮아진 원격수업만족도로 인해 취업준비행동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학생의 불안을 낮추고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사학생관계는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성화고에서 원격수업의 중요성이 특히 커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고교학점제의 시행으로 특성화고에서 플립러닝의 형태로 원격수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격수업의 질을 관리함으로써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3. 제언

#### 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취업준비행동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개발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그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어왔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의 발생과 함께 교육현장에 원격수업이 도입되었다. 이전의 원격수업이 단위학교가 개설하기 어려운 소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정규 수업을 보완하는 가정학습과 보충학습의 용도로 활용되었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원격수업은 본격적으로 학교수업을 대체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보편적 수업으로서의 원격수업 연구도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의 원격수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거나(유민우, 2020; 서혜선, 2020; 조보람, 2021; 강성배, 2021), 초중등단계 교육에서는 학생보다는 교수자의 경험을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최형미, 이동국, 2020; 임은정, 권수미, 2020; 김미진, 2021).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준비 중인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특성화고에서 원격수업은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특성화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플립러닝이나 학교 간 공동 교과를 개설해 원격수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특성화고에서의 원격수업에 관한 연구, 특히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이 그들의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강화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원격수업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업만족도 연구를 기초로 원격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대면수업을 받는 것과는 달리 원격수업은 학교 공간을 벗어나 가정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원격수업 참여 동기와 몰입,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와 같은 학생 개인 변인으로 인해 교육만족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열악한 가정환경이나 부모의 돌봄 여부에 따라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원격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은 일반적인 수업만족도의 선행변인과는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사나 학교 변인에서도, 원격수업 시스템 관리와 조작 등이 수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원격수업 설계와 실행, 교수효능감 등과 같은 교사나 학교 관련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주로 통제변인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도입 초기, 수업공간이 가정으로 옮겨지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가정배경을 독립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발달이나 학습, 구체적인 진로나 취업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은 다소 조심스럽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하위요인인 학력이나 소득은 부모나 자녀의 개인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부모의 지지나 양육태도 등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또한 어느덧 원격수업이 도입된 지 만 2년이 지나면서, 정부가 원격학습기와 무료 인터넷을 보급하는 등 인프라는 구축되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연구에서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부모 지지와 같은 보다 폭넓은 가정변인으로 선행변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만족도를 연구하였다. 이때

의 원격수업은 전면 원격수업이며, 모든 학생은 동일한 원격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특성화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본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수업에도 원격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즉, 같은 수업을 두고 A학교 학생은 대면수업을, B학교 학생은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동일한 수업에 대한 대면과 비대면 수업 참여자들의 수업만족도를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원격수업의 효용성과 만족도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이 연구는 직업계고 학생들 가운데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 마이스터고 학생을 포함하여 직업계고 전반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해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취업난 속에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진학을 선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마이스터고 학생은 오로지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교마다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똑같은 직업계고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간 특성에 따른 원격수업만족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학생의 취업의지나 학교의 원격수업 고도화 노력 등이 선행변인으로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 나. 연구 결과의 활용을 위한 제언

정부는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EBS 온라인클래스를 개발하고 교육용 인터넷서비스를 무료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펼쳐왔다. 그러나, 워드코로나의 시행과 함께, 대면수업을 재개하면서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전면에 내걸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수업을 ‘뉴노멀’로 정의하고 미래교육의 시작으로 선언했던 것과는 달리,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원격수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닌지 우려도 앞선다. 원격수업은 그 자체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미래교육의 모델이다. 따라서 원격수업은 폐기될 정책이 아니라, 지속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다양한 학업적 욕구를 채우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교육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원격교육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그리고 교사학생관계가 원격수업만족도를 경유하여 취업준비행동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전문교과는 대부분의 수업을 실습으로 진행한다. 실습 수업은 실제성이 강하고 기능 습득을 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교과에 비해 원격수업이 더욱 어렵다. 특성화고 실습수업에서 학생은 교사의 시범을 따라 기능과 태도를 습득하기 때문에 원격수업에서도 실습수업의 실재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권성연, 2011; 최부기, 전주성, 2011). 컴퓨터 등을 이용해 기자재를 간접 체험하는 원격수업은 한계가 있다(정현철, 윤현수, 2020; 이희승, 2020; 정숙진, 신영준, 2020; 이용섭, 2020; 모주순, 함형인, 2021). 불안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사학생관계가 원격수업만족도를 경유하여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만큼, 교사는 유용한 원격수업용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원격으로 이루어지는 실습수업의 실재감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다. 원격수업을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연수도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원격수업 환경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상황에서 소외계층 학생에게 원격교육 장비가 우선 제공되었다면, 원격수업이 보편교육으로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필수적이다.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장비는 기존에 학교가 무상으로 제공해 온 학습 기자재와 다르지 않으며 학생들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편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리터러시 교육도 수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전의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이 학교 공간 안에서 디지털 기기를 조작하는데 주력했

다면, 최근에는 그 개념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래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시민으로서 다양한 소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기초학력으로서의 디지털리터러시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디지털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주로 교실에서 원격수업을 진행하지만, 학생들은 가정에서 원격수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가정의 생활상, 즉 사생활이 일정 부분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자기노출에 민감한 나이이다. 선행연구에서 보듯 특성화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가정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자기 노출을 꺼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저작권, 초상권을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윤리교육도 함께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성화고 학생의 불안은 취업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만족도를 매개로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원격수업 상황에서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동체 소속감을 키워줄 수 있는 활동을 적극 마련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취업지원프로그램과 취업처 발굴도 필요하다. 이러한 활동들의 전제는 교사학생관계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학생들의 심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려와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 수업은 다양한 변인의 복합체이다. 이러한 특성은 원격수업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격수업에도 학생과 교사, 환경 등 다양한 변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경필. (2014).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취업스트레스,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관계분석. **진로교육연구**, 27(1), 19-38.
- 강민경. (2009).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효과성과 만족도**.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성배. (2021). 대학 온라인 원격수업에 대한 운영 및 만족도 연구: 실시간, 비실시간 원격수업을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1), 15-30.
- 강승희. (2010). 공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효능감 및 진로태도 성숙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3), 291-307.
- 강인혜, 유금란. (202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과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지각된 진로장벽을 통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21-42.
- 강호수, 남신동. (2020). ‘코로나19’로 변화된 일상 속, 학습격차의 확대 재생산 : 경기도 학생·학부모 대상의 조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비평**, 46, 180-193.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1). **청년 10명 중 9명, “코로나19로 구직 어려워졌다”** (2021.02.02.). 서울 :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계보경, 김혜숙, 이용상, 김상운, 손정은, 백송이. (2020). COVID-19에 따른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경험 및 인식분석-기초통계결과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2020-11**. 대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고완숙. (2014). **취업준비대학생이 지각한 취업장벽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은희. (2020).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우울감이 관광 전공 재학생의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행복추구의 조절효과. **호텔경영학연구**, 29(8), 163-181.
- 공윤엽, 박기태. (2018). 주관적 부채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집단 간 비교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9(4), 25-40.
- 공인주. (2013). **고등학생의 부모·교사·또래 애착과 학교 적응 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2019). 장애인·장노년층·농어민·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에 관한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19.02.25.). 한국정보화진흥원 : 대구
- 곽명희, 곽영희, 고미나. (2018). 고등학생의 부모애착, 교사-학생 관계, 학습동기와 학습몰입 간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5(11), 209-229.
- 관계부처 합동. (2019). **고졸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2019. 01.25.). 관계부처합동.
- 교육부. (2014).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 (2020a),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첫 조사결과 발표** (2020.11.27). 세종 :교육부
- 교육부. (2020b). **처음으로 초·중·고·특 신학기 온라인개학 실시** (2020.03.31.). 세종 : 교육부
- 교육부. (2020c). **체계적인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마련** (2020.03.27). 세종 : 교육부
- 교육부. (2021a). **2020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세종 : 교육부
- 교육부. (2021b). **고교학점제 미래교육과 만나다** (2021.03.15.) 세종 : 교육부

- 교육부. (2021c). 202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 발표. 세종 : 교육부
- 구인회. (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2, 5-32.
- 구인회. (2009). 경제위기가 고용과 빈곤에 미치는 효과 토론문. **학술대회논문집**, 2009.1, 95-97.
- 권경림, 구남욱. (2019). 부모의 자녀학습지원정도가 학업성취도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력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6), 1049-1069.
- 권성연. (2011). 온라인 학습에서 사회적 실재감과 학습자 특성, 토론효과 및 학습효과 인식,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교육과학연구**, 42(3), 55-82.
- 권순구, 봉미미, 김성일. (2016). 교사-학생관계 교사효능감 척도 개발. **교육심리연구**, 30(3), 469-496
- 권영애, 송영은. (2017). 학습만족도 중심의 실시간 원격 화상 교육 개선 방안 연구 - ‘한국디자인의 역사’ 와 ‘한국어’ 강의 사례 중심으로. **브랜드디자인학연구**, 15(1). 93-108.
- 권영중, 최성용. (2017). 사이버대학의 교육서비스 품질이 학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프라인 캠퍼스 보유 여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산관리학회지**, 28(2), 179-19
- 권은경. (2021). 중학생의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Grit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10), 247-252.
- 김경근. (2005). 한국사회 교육격차의 실태 및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5(3), 1-27.



- 김경근, 변수용. (2007). 한국사회에서의 학업성취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7(1), 23-51.
- 김경근. (2008). 한국사회의 대안교육 수요 결정요인. **한국교육학연구**, 14(1), 45-69.
- 김경태. (2003). 특성불안과 비합리적 신념이 진로 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혁. (2019). 가구소득이 학업성취, 우울불안,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아동청소년 대상 패널 비교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5, 1-27.
- 김근영, 박금주. (2015).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청소년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 “청소년학연구” 논문 개관을 통해 본 과제와 제언. **청소년학연구**, 22(11), 269-297.
- 김근혜, 박진영.(2017). 호텔조리전공 고등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북아관광연구**, 13(3), 83-101.
- 김나영. (2009). 사이버교육에서 학습동기, 프로그램, 조직의 지원과 상호작용, 몰입 및 학습성과의 구조적 관계 규명.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남희, 변숙영, 최동선. (2020). 중등 직업교육에서의 전문교과 원격수업 실태와 향후과제. **KRIVET Issue Paper**, 20(25).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남희. (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에착관계와 학업성취 간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동심, 주영주. (2017). 일반고와 특성화고 학생의 부모지원, 교사지원, 진로성숙도, 자기조절학습 및 학교만족도 차이 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20(3),

95-122.

김미량, 김진숙. (2007). 사이버 가정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및 만족도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7(10), 44-58.

김미숙. (201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전공수업 몰입경험 및 진로탐색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진. (2021).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이 원격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습환경인식의 조절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성, 신태수, 허유성. (2012). 중고등학교 시기 교사-학생관계, 교우관계의 종단적 변화가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教育心理研究**, 26(2), 429-459.

김민성, 엄채윤, 박은정. (2009). 중학생이 인식하는 ‘배려하는 교사’의 특성과 유형 분석. **한국교육연구**, 26(2), 145-173

김보람. (2018). **관광관련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과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봉환, 김계현. (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김상식. (2019). **농업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스트레스, 셀프리더십, 진로정체감 및 취업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순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선근. (2017). **대기업 근로자의 혁신행동과 리더-멤버교환관계, 심리적 임파워먼트 및 팀 학습행동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성남, 김남희. (2020).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직업계고 온라인 개학 대응 동향 및 주요 이슈**. **KRIVET Issue paper**, 20(03). 세종 :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김성식, 류방란. (2008).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가정 배경, 학생 노력, 학교 경험의 영향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8(2), 31-51
- 김성식. (2018). 초등학생의 다문화 시민성에 대한 학교 경험 변인의 효과 분석. **한국초등교육**, 29(1), 1-15.
- 김성환, 전용석, 이경상. (2005). 청소년 진로선택 결정요인.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245-258.
- 김세련. (2013). 온라인 수업환경에서 학습자 참여와 학습만족도 및 인지된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습자의 이러닝 준비도와 교수실재감의 효과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라, 문승태. (2017). 고등학생 진로개발역량에 있어서의 부모의 역할. **진로교육연구**, 30(4), 27-48.
- 김소영, 홍세희. (2013). 연구논문 : 전문계고 졸업자의 진로준비행동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의 관련성 검증. **조사연구**, 14(1), 93-116.
- 김승진. (2002).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신일. (2015). **교육사회학**. 제5판. 파주: 교육과학사
- 김안국, 신동준. (2007).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실태. **산업노동연구**, 13(2), 125-148.
- 김영도, 장재윤, 남상희. (2021) 사회경제적 지위가 면접에서의 인상관리 책략에 미치는 영향: 통제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34(3), 479-510.

김영은, 엄명용. (201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정서적 지지와 학생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9(4), 5-30.

김윤중. (2015). 4년제 대학생의 취업목표설정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11), 7293-7299.

김은경, 김순규. (2015). 선형모형을 적용한 청소년기 애착의 변화양상에 관한 종단연구. **학교사회복지**, 32(-), 357-384.

김은정. (2011).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인곤. (2015).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도 담당교사의 취업지도능력과 학교환경변인, 교사효능감 및 직무몰입의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인예. (2003). **교사-학생간의 인간관계 지각에 따른 동기유발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정남. (2014).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취업스트레스간의 관계. **호텔관광연구**, 16(6), 40-58.

김종백, 김남희(2014). 교사와 학생이 지각한 학생-교사 관계의 변화가 학생의 학교행복과 수업참여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1(12), 285-315.

김종백, 김준엽 (2009). 학업성취 관련요인과 자아개념을 매개로한 부모의 교육기대와 학업관여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종단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3(2), 389-412.

- 김종백, 탁현주. (2011). 교사의 다문화 교육인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교사-학생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10), 161-185.
- 김주섭. (2017).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진로장벽 및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2), 141-166.
- 김주아. (2009). 특수목적고·특성화고 학교선택 행위와 학교의 특성화 전략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 (2017). 특성화고에서의 NCS기반 교육과정 적용 현황과 개선 방향. **THE HRD REVIEW**, 20(6), 32-45.
- 김지혜, 김정남, 남정현, 천성문. (2008). 고등학생의 학교적응 구성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논단**, 7(1), 39-56.
- 김진모, 손규태, 이은표, 정지용, 장한별, 이화진. (2020). 대학 온라인 실시간 전공수업에서 교수자-학습자 상호작용, 학습자-학습자 상호작용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2(3), 25-48.
- 김진숙, 채선화. (2015). 학교급별 부모애착, 교사애착, 또래애착과 학교적응 간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6(4), 339-358.
- 김태영. (2006).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가 학생의 수업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환. (2019). 대학생의 진로선택몰입과 가족지지, 취업불안, 진로탐색행동, 자율적 진로탐색 동기의 구조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관환. (1997). 진로의사결정 프로그램. **한국진로상담학회지**, 2(1), 36-65.
- 김한나. (2021).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유형에 따른 사범학부 학생들의 강의만족도와 학습효과 연구 : 동영상 제작 수업과 실시간 화상 수업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169-193.
- 김현정. (2016). **항공서비스관련학과의 교육환경이 교육만족,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진.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장기적 매개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30-40.
- 김형규, 강재태. (2005). 부모-자녀간의 교류패턴과 초등학생들의 사회성간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16, 5-25.
- 김혜연 (2012). **여자고등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부모의 학습관여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주. (2006).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몰입경험이 진로 결정 효능감 및 진로 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홍국. (2018). **취업장벽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겸. (2021).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업계열 고등학교 전문교과 원격 수업 만족도 조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진, 장운옥(2011).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과의 관**

- 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8(7), 1-32
- 김흥수. (2020). **외국인유학생의 한국어 의사소통과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희자. (2008). 청소년 빈곤과 진로성숙도, 교육포부. **보건과 복지**, 10, 87-106.
- 김희정. (2012). **교사-학생관계 및 학습동기와 학습몰입간의 구조적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승일, 마상진. (2002). 사회 변화와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농업계 고등학교 교수-학습 전략 탐색.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4(1), 193-208.
- 남수정. (2011). 고교생의 진로교육의 현황 및 진로역량과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1), 283-304.
- 남지원, 남택진. (2017). 실시간 원격 강의 개선을 위한 능동적 투명도 적용 양방향성 인터랙션.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533-537.
-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 (2011).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9(1), 63-92.
- 노법래. (2013). 후기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3), 171-193.
- 노연희, 장재윤. (2005). 대학졸업자들의 진로미결정 및 직업탐색행동이 개인-직무 적합과 개인-조직 적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4), 23-43.

- 노영. (2005). 원격교육의 학습자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 연구**, 6(2), 111-132.
- 류방관, 김성식. (2006). 교육격차 :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맹희주. (2014).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직업가치관과 진로성숙도 비교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8(3), 579-599.
- 모주순, 함형인. (2021). COVID-19로 인한 기술교과 원격수업 현황과 기술교사의 인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3), 931-950.
- 문수연. (2016). 교육 불평등 변화 양상 분석. **한국사회학**, 50(5), 141-171.
- 문은식, 김중희. (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학회**, 16(2), 219-241.
- 문정선, 문경숙. (2018).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학습관여와 교사의 기대가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5), 191-215.
- 민경희. (2012). **대학생용 정서·성격적 진로문제(EPCD) 척도 타당화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소라, 김영택, 이슬기. (2019). 항공서비스학과 재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평생교육·HRD연구**, 15(3), 1-23.
- 박경인. (2010).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가 학업성취도 및 학교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희. (2020). 코로나19 시대의 교육격차 실태와 교육의 과제: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0(4), 113-145.
- 박민석. (2018).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정영숙. (2011).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결정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연구**, 17(1), 18-39.
- 박수애, 송관재. (2005). 사회적 불안이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1(2), 1-29.
- 박수익. (2011).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학교효과. **교육사회학연구**, 21(1), 55-76.
- 박수진. (2013). **미용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실기수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우. (2000). **교사-학생의 인간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완성. (200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14(2), 104-125.
- 박완주, 손혜원, 변채영, 손혜리, 이승현, 이예진. (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대학생의 감염불안, 충동성, 의사결정유형이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추구행위에 미치는 영향. **경북간호과학지**, 25(1), 13-24.
- 박용관. (2003).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학생의 자아개념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선. (2008). **아버지 애착과 지지가 대학생의 진로탐색 자기효능감과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인실, 김미정. (2015). 항공서비스전공자의 전공선택동기와 직업가치관이 전공만족과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저널**, 29(6), 139-151.
- 박재은, 이정애, 이지연, 정익중. (2011). 청소년기 애착이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3), 93-116.
- 박종성, 이수정. (2020). 코로나19 대응 직업교육훈련현황 및 지원 방안: 일학습병행을 중심으로. **KRIVET Issue paper**, 20(01).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박진아. (2012). **e-learning 콘텐츠 유형에 따른 학습 만족도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창남, 도종수. (200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2, 281-303.
- 박현수. (2013). **중학생의 수학불안요인과 학년 및 수학성취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2018). **조리위탁교육생의 교육만족도가 교육성과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남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정. (2020). **온라인으로 진행된 초등학교 정규 영어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 분석**.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하남, 김기현. (2001). 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 간 지위세습 및 성취

- 구조. **한국사회학**, 33(3), 1-30.
- 방하남, 김기현. (2002). 사회와 불평등: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 배상훈, 김환식, 김효선. (2011). 마이스터고 학생의 학교소속감, 학교만족도, 학교수업 및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 **직업능력개발연구**, 14(3), 155-180.
- 배정미. (2018). **창원지역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경화, 지치환. (2009). 경호학과 학생들의 전공수업만족도가 진로 결정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시큐리티연구**, -(21), 19-33.
- 백병부. (2021). **코로나19와 원격교육 :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제안**. 경기도 : 경기도교육연구원.
- 백순근, 박경인. (2010). 여고생이 지각한 교사 - 학생 관계와 교과 성적 및 학교교육만족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23(2), 281-299
- 백순근. (2000). 교육평가의 개념에 대한 고찰 - '교육적 가치'를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13(1), 1-20
- 서경혜. (2004).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과 개념: 교사와 학생 면담 연구. **교육과정연구**, 22(4), 165-187.
- 서나래. (2020). **초·중등 영어 교사들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명선, 박수진, 안성식. (2018). 항공서비스 전공대학생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취업진로연구**, 8(4),

147-173.

- 서보람. (2016). **비서학전공 전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사회적 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2017). **학교 다양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학교 및 학생 특성 분석**. 서울: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 **2020 서울교육공론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 서정선. (2002).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학교 및 가정배경변인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지윤. (2008). **대학졸업예정자의 취업불안과 취업처 선정 기준 간의 관계 분석**.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혜선. (2020). **비대면수업에서 학습성취도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6(4), 157-164.
- 서희전. (2010).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대학생의 학습양식과 성별이 자기조절 학습전략 및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6(3), 433-457.
- 석민경. (2020). **대학졸업예정자의 취업불안, 구직효능감, 취업준비행동 간의 관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선혜연, 정솔피, 송효경, 오정희. (2016). **진로상담에서 정서·성격적진로문제에 대한 연구동향**. *인간이해*, 37(2), 5-27.

- 손찬희, 강성국, 하성준. (2014). 스마트교육 차원의 온라인수업에 대한 교사 및 학생의 인식 및 만족도. **한국교육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374-384.
- 송교원, 이창훈. (201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또래관계와 수업몰입의 관계.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4(3), 125-148.
- 송미화. (2019). 이러닝 기반 교직원 안전교육의 학습만족도와 업무활용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영선. (2016).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 및 입학동기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인순. (2009). 자아개념과 불안이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섭. (2021).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전공 만족도와 취업 준비 행동 간의 관계 분석: 취업 결정 수준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명호. (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2), 217-245.
- 신민형. (2015).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사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애현. (1998).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선영, 김희진. (2012). 성인의 기준에 대한 청년세대와 부모세대 성인의 인식

- 비교. **미래청소년학회지**, 9(4), 75-97.
- 안재영, 이영민, 류지은, 김민규, 임해경. (2020). 직업계고 전문교과 온라인 실습의 주요 이슈와 개선방안. **KRIVET Issue paper**, 20(05),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재영. (2019). 특성화고 학생의 학교교육 만족도와 교육 요구 및 진로 계획에 대한 연구.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9(3), 61-92.
- 안주희. (2009). 후기 근대사회 현대인의 불안과 강박에 대한 탐색. **사회연구**, 18, 73-99.
- 안혜진, 정미경. (2015). 청소년의 자아개념, 사회적지지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3), 27-40.
- 어윤경, 김동일, 정여주, 이주영. (2011). 대학생용 취업준비행동 검사 개발 및 타당화. **한국교육학연구**, 17(3). 267-291.
- 오민경, 이서정, 박상표, 문인수, 하창순. (2017). 대학생 완벽주의, 취업불안,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정상담학연구**, 2(2), 5-26.
- 오석영, 조인식. (2015). 특성화고 취업집단의 진로결정요인 분석연구: 진로집단, 진로미확정 집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4): 49-70
- 오욱환. (2003). 교육사회학의 이해와 탐구. 교육과학사.
- 원소미. (2016). 가정의 사회경제적배경과 부모진로지지, 학교진로지도 경험이 고등학교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정달. (2019). **인문계열 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위재원. (2014). **사회경제적 지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 선. (2009).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업성취의 관계**.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민우. (2021). **대학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 강의유형과 교과유형의 수업만족도와 학습실재감에 대한 상호작용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연화, 임경애. (2011). 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생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5(1), 461-484.
- 유영은. (2008). **언어 불안이 학업성취도와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경희.(2001). 학업성취결정모형의 종단적 분석. **교육이론과 실천**, 11(1), 137-162.
- 윤광현. (2013). 특성화고등학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 대구·경북지역 특성화고생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27(4), 19-39.
- 윤명희, 유형숙. (2010). 한일 관광관련학과 대학생의 희망직업 전공 간 일치여부 및 취업준비행동 비교. **일본근대학연구**, 0(27), 203-216.
- 윤미숙. (2017). **전문대학 졸업예정자의 취업행동과 개인 및 조직 변인의 위계적 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선희, 이규민. (2009). 청소년의 성취목표지향성과 불안이 진로결정수준에 미

- 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0(4), 189-207.
- 윤선희. (2008). **고등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불안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시혜. (2019). **항공 서비스 전공학생의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래. (2009). **조리관련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식조리전공 만족도가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초당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나영. (2012). **4년제 대학 여대생의 전공 계열별 취업준비행동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데일리. (2021). 2030 청년층, "우리는 '코로나 세대'...IMF보다 암울". (이데일리, 2020.04.08.)
- 이동훈, 김예진, 이덕희, 황희훈, 남슬기, 김지윤. (2020).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감염에 대한 일반대중의 두려움과 심리, 사회적 경험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4), 2119-2156.
- 이동훈, 김지윤, 강현숙. (2016). **메르스(MERS) 감염에 대해 일반대중이 경험한 두려움과 정서적 디스트레스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35(2), 355-383.
- 이득연. (2004). **진로탐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관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훈. (2016).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관련 변인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6(2), 149-166.



- 이미선, 송태임. (2018). 미용학원의 강사역량이 수강생들의 수업만족도 및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4(1), 455-467.
- 이미숙, 이홍우, 이진춘. (2010).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교육품질, 학교생활만족도, 지각된 학업성과 간 관계에 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63(1), 117-141.
- 이봉주(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한국청소년학회**, 21(8), 317-346.
- 이상희. (2010). **출신교교별 미용전공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쌍철, 김정아. (2018). 학생의 온라인수업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회지**, 36(2), 115-138.
- 이쌍철, 박상완. (2017).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요구 분석. **한국교육**, 44(3), 33-63.
- 이쌍철, 엄문영. (2014). 특성화고 취업의 특징과 취업에 영향을 주는 학교 특징 분석. **한국교육**, 41(3), 89-117.
- 이연수, 정한결. (2012). 무용전공 대학생의 예술경영 수업만족과 진로탐색행동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무용과학회지**, 26, 17-34.
- 이영광, 김민수, 김민주. (2014). 청소년의 진로성숙을 변화·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가?. **한국사회과학연구**, 33(2), 157-179.
- 이영민, 이수영, 임정연. (2013). 4년제 대학 예체능계열 졸업생의 취업준비행

- 동과 취업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과학연구**, 52(1), 1-28.
- 이영민, 이수영. (2010). 대학 이공계열 전공 여학생의 취업준비행동 분석. **평생교육 · HRD연구**, 6(2), 77-98.
- 이영선. (1999). 진로 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애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2015). 실시간 원격 화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례 연구. **돈암어문학**, 28, 413-437.
- 이용섭. (2020). 원격과학수업의 활용도 및 문제점, 학습자 행동분석.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13(2), 175-185.
- 이유정. (2015). 학교 교실 내 빛 환경이 학습정서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곤. (2020) 실습 중심 교육의 실시간 원격 강의 방식의 차이가 학습자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연구**, 38(4). 137-147.
- 이은란. (2021). 코로나(COVID-19) 유행 상황에서의 대구·경북 대학생들의 삶의 질 변화 양상.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 장윤옥. (2008). 개인·가족·학교관련 변인이 중학생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355-376.
- 이은준. (2013). 온라인 학습자들의 불안과 장애요인 인식 유형에 따른 수업만족도 차이. **人間理解**, 34(2), 61-79.
- 이은혜, 장인실. (2021). 코로나시대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초등학교의 원격수업 운영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4(1), 71-93

- 이정민, 정혜원. (2019).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관한 학생 및 학교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0(1), 279-311.
- 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수원 :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정연, 박미희, 소미영, 안수현. (2020). 코로나19와 교육: 학교구성원의 생활과 인식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경기도교육연구원.
- 이제경, 김동일. (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과 심리적 특성. **상담학연구**, 5(4), 993-1016.
- 이제경, 이승구. (2008). 한국 대학생의 취업목표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및 직장 만족도 차이. **진로교육연구**, 21(3), 1-25.
- 이제경. (2004).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주성. (2016). 경영학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고용가능성의 매개효과. **상업교육연구**, 30(2), 1-31.
- 이지혜, 정철영. (2010).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1), 25-47.
- 이현주, 부은주. (2020). 교과흥미의 중·고등학교급 전환기 변화: 일반계와 직업계 고등학교의 비교. **중등교육연구**, 68(1), 169-195.
- 이현주. (2009). 비합리적 신념과 상태불안의 진로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2(2), 101-116.
- 이희승. (2020). 음악전공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연구. **음악교수**

- 법연구, 21(2), 177-197.
- 이희정. (2021). **의과대학 온라인 교육의 학습 참여도, 학습 성취도 및 학습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효과적 교수학습 전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 언. (2020). 특성화고 학생의 기초학습능력 감소 실태와 대응책. **THE HRD REVIEW**.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승민. (2011). **경호관련학과 학생들의 전공 만족도와 진로결정효능감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언, 이수정, 윤희한, 정혜령. (2015). 특성화고 보통교과 및 직업기초능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2020). 특성화고 학생의 기초학습능력 감소실태와 대응책. **이슈분석**.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이가영, 김정빈. (2016). 한국 고령자의 역량 실태와 관련 요인. **핵심역량교육연구**, 1(1), 79-95.
- 임은정, 권수미. (2020). 비대면 음악 온라인 원격 수업 실태 연구. **예술교육연구**, 18(3), 165-184.
- 임지혜, 김재우. (2020). 자살생각 위험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 및 사회관계와 활동참여의 조절 작용: 생애주기와 성별 차이 비교. **조사연구**, 21(1), 117-149.
- 임헌조. (2020). **자유학년제 체육활동 참여 중학생의 수업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혜정, 이선영. (2020). 가정배경이 국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초4~고3 시기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2, 53-71.
- 장미경. (2018). **인문계 고등학생의 온라인 수업 이용에 관한 만족도 조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미혜. (2002). 사회계층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장선철. (2003). **대학생의 진로결정 유형화와 개인.인지 변인과의 관계 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영문. (2004). **중학생의 체육수업 학급 유형에 따른 수업태도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영은. (2015).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및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 부모 온정성과 교육적 가정환경의 매개효과. **한국아동학회지**, 36(6), 1-21.
- 장은경. (2000). **가출경험학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사회사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은정, 서윤경, 정효정. (2010). 사이버대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이러닝 콘텐츠 구성요소별 만족도가 강좌의 만족도, 효과성 인식과 중요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26(1), 57-85.
- 장현진, 이지혜. (2012).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 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직업능력개발연구**, 15(2), 51-74.
- 전진아, 이지혜.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마음건강 돌봄 현황 및 과**

- 제. **보건·복지 Issue&Focus**, 375(-), 1-8.
- 정다솜. (2021).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부족과 취업불안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명희. (2019).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 취업불안, 취업준비행동의 영향관계 연구. **관광연구**, 34(1), 179-200.
- 정민주. (2014). 4년제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취업불안 및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항공경영학회지**, 12(1), 81-104.
- 정소희. (2013).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44(4), 31-55.
- 정숙진, 신영준. (2020). COVID-19로 인한 온라인과 대면 수업 병행 운영에서 초등교사가 겪는 과학 수업의 어려움 분석. **교육논총**, 40(3), 93-112.
- 정양수. (2015). 온라인 영어학습에서 학습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언어학연구**, 0(34), 325-347
- 정영란. (2009). 사이버대학에서 수업만족도 영향 요인이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관한 연구. **교육공학연구**, 25(1), 61-94.
- 정영식. (2020). 비대면 시대의 원격수업. 대구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정원식. (1976). **교육환경론**. 서울: 교육출판사.
- 정은진, 김남희. (2020). 직업교육에서의 AR/VR 활용의 주요 이슈분석. **KRIVET Issue paper**, 20(1).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정종구. (2010). **실시간 원격화상시스템을 이용한 원격수업의 상호작용유형과 학습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혜.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직업포부 결정요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철, 윤현수. (2020). **코로나 19 펜데믹 상황에서 중등학교 온라인 체육수업 사례 및 과제 연구**.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ce(AJPRESS)*, 8(3), 159-175.
- 정혜욱. (2020).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개학**.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진, 최화열. (2010). **커뮤니케이션 성향과 불안감이 관광영어교육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 *상품학연구*, 28(4), 1-9
- 정희영. (2009). **미용전공 대학생의 가치관과 자기효능감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규판. (2008). **취업불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학회*, 26(2), 53-75
- 조규형. (2014).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규형. (2018). **대학생의 진로의사결정 수준 검사도구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미영. (2007).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내외통제성 및 불안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미형, 최상미, 엄태영. (2006). **남녀 청소년의 부모·친구·교사에착과 학교**

- 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0), 81-97.
- 조보람. (2021). 원격화상강의에 대한 교수자 및 학습자 만족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 401-425.
- 조수선, 주라헬. (2020). 전면적 원격수업 상황에서 대학생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코로나 불안의 조절효과. **교육정보미디어연구**, 26(4), 909-934.
- 조아라, 노석준. (2013). 원격대학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몰입, 학습태도, 학습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 분석. **교육공학연구**, 29(4), 849-879.
- 조아미. (2007). 청소년의 직업결정유형과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시설환경**, 5(1), 11-20.
- 조윤서. (2013). 직업가치에 따른 취업준비행동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4), 1690-1698.
- 조은정. (2008).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6), 299-322.
- 조혜정, 홍다영. (2017).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정신건강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8(2), 35-61.
- 주명진. (2010). **대학생의 불안과 진로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진로교사의 지원,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 진로교육연구, 26(4), 25-47.
- 주영주, 김나영. (2007). 컨소시엄 형태의 원격대학을 위한 강좌평가 척도 개발.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3(1), 197-220.
- 주영주, 김소나, 박수영, 김은경. (2009). 기업 사이버교육에서 학습자의 만족도, 학업 성취도 및 학습전이 간의 관계 규명. **교육정보미디어연구**, 15(1). 23-43.
- 중앙방역대책본부. (2021.03.25.)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5. 0시 기준)
- 중앙일보. (2020). “술래잡기하다 몸스치자 소리쳤다” ..아이들 모습에 놀란 교사 (중앙일보. 2020.11.24)
- 지계웅, 한진영. (2016). 4년제 대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 비교연구-C 대학을 사례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4(6), 33-41.
- 지은림, 백순근, 채선희, 설현수. (2003). 교사-학생 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평가연구**, 16(2), 25-42.
- 진경미. (2015). 항공서비스 전공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4(6), 145-162.
- 진미경. (1999).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따른 진로유형화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미경, 배한진, 권순범. (2021). 원격수업 시대, 가정의 ICTs 환경 적합성 : 가구 및 가구원 수별 스마트기기 보유 단기 종단적 비교.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11-22.

- 진성미. (2011). 서울시 초·중·고교생의 진로성숙도 관련변인별 집단 비교. **한국교육문제연구**, 29(2), 133-156.
- 채정민. (2016). 인간 대상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SES) 변수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27-228.
- 천석준, 이기학. (2008). 신경증, 불안, 자기효능감 및 진로탐색행동 간의 경로 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93-110.
- 최미진. (2021). 항공서비스 전공 학생의 취업불안이 전공만족도와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광경영연구**, 25(3), 585-609.
- 최부기, 전주성. (2011).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의 사회적 실재감, 수업만족도,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2(4), 315-334.
- 최승우. (2001). **교사-학생의 상호작용 유형과 학업성취와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옥현. (2006). **대학생의 애착관계 및 유형과 진로탐색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인영. (2020). **항공서비스 전공 학생들의 현실인지, 부러움, 불안감과 진로목표다양성, 취업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정문. (2013). **내현적 자기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검증**.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 (2013). **유아, 어머니, 교사 특성이 어머니-교사 협력관계 및 인지 발달에 미치는 영향: 횡단 및 종단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형미, 이동국. (2020). COVID-19에 따른 중등 교사의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1047-1071.
- 탁진국, 이기학. (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경영연구**, 1(1), 167-180.
- 탁진국. (1996). 경력미결정과 부적응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9(2), 81-94.
- 통계청. (2021).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2020.11.19.)
- 하영만. (201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겨레신문. (2017). “어느 인구학자의 선택 “내 아이는 과외 끊었다” (한겨레신문. 2017.06.19.)
- 한광택. (1990). 교사-학생의 인간관계가 학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09). 고등학생의 학업생활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덕웅, 이창호, 탁진국. (1993). Spielberger 상태-특성 불안 검사의 표준화. **학생지도연구**, 10(1), 214-222.
- 한미옥, 조규판. (2021). 체육계열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취업불안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5), 95-104.
- 한은혜. (2017).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율성과 교사의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지현, 장재윤. (2005). 남성 또는 여성중심적 직업을 희망하는 여대생들의 개인특성 및 구직행태에서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8(3), 585-609.
- 허균. (2013). 일반고 학생들의 부모애착 및 교사애착, 진로탐색 효능감, 진로탐색 행동의 구조적 관계 연구. **직업교육연구**, 32(5), 189-203.
- 허아정. (2021). 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서조절 간의 관계 및 금전 문제에 대한 반추의 매개 효과.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영준, 박동열. (2018). 직업계고 현장실습 단일교과 도입 및 운영 방안. 세종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현지영, 김경근. (2015). 가정배경, 가정 및 학교 내 사회자본, 학업성취 간 구조적 관계.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 자료**, 91-121.
- 홍두승. (1999). 스페인의 사회계층.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84-191.
-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혜진, 이재창.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29-160.
- 황세원. (2012).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수진. (2020). 미용전공 대학생의 현장실습만족, 전공만족이 진로결정, 취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순필. (1998). 고등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인간관계와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여정, 김경근. (2006).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만족도 결정요인. *교육사회학 연구*, 16(2), 181-203
- 황여정. (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1), 131-158.
- 황정희. (2016). 항공서비스전공 대학생의 진로장벽 지각이 전공만족도 및 취업 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지영. (2012).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전공수업 몰입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직업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rcaro, J. (1995) *Quality in Education: An Im-plementation Handbook*. St. Lucie Press, Delray Beach, Florida.
- Barber Alison E,Daly Christina L. (1994). Job search activities: An examination of changes over time. *Personnel psychology*, 739.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5, 61-79
- Blau, G. J. (1988). future exploring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career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2(3), 284-297.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olopment :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edUniversityPress.

- Brophy, J., & Good, T. (1974).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Causes and Consequence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Brown, G. S., & Strange, C. (1981). The relationship of academic major and career choice status to anxiety among college fresh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9*, 328–34.
- Cohen, S., Doyle, W. J., & Baum, A. (2006). Socioeconomic status is associated with stress hormones. *Psychosom. med., 68*(3), 414–420.
- Coleman, J. S., Campbell, E. Q., Hobson, C. J., McPartland, J., Mood, A. M., Weinfeld, F. D., & York, R. (1966).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Creech, A., & Hallam, S. (2011). Learning a musical instrument: The influence of interpersonal interaction on outcomes for school–aged pupils. *Psychology of Music, 39*(1), 102–122.
- Davis, J. A. (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Ellenberger, H. F. (1970). *The discovery of the unconscious: The history and evolution of dynamic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 Fuqua, D. R., & Hartman, B. W. (1983). Differenti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Personnel & Guidance Journal, 62*(1), 27–29.

- Ginzberg, E. (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A restatement.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 169–176.
- Goodenow, C. (1993). Classroom belonging among early adolescent students relationships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3(1), 21–43.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
- Greenhaus, J. H., Sklarew, N. D. (1981). Some sources and consequences of career explora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1), 1–12.
- Hayes, A. F. (2013). Methodology in the social sciences.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ress.
- Hrastinski, S. (2008). Asynchronous & Synchronous E–Learning. *Educause Quarterly*, 51–55.
- Jones, L. K., & Chenery, M. F. (1980). Multiple subtypes among vocationally undecided college students: A model and assessment instru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7(5), 469–477.
- Kanfer R, Wanberg C R, Kantrowitz T M. (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37–855.

- Kelly, E. W.(2020). Reflections on Three Different High School Chemistry Lab Formats during COVID-19 Remote Learning. *Journal of Chemical Education, 96*, 2606-2616.
- Kimes, H. G., & Troth, W. A. (1974). Relationship of trait anxiety to career decisiv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4), 277-280.
- Kraus, M. W., & Keltner, D. (2009). Signs of socioeconomic status: A thin-slicing approach. *Psychological Science, 20*(1), 99-106.
- Lempers, J. D., Clark-Lempers, D., & Simons, R.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25-39.
- Newby, M., Rickards, T., & Fisher, D. (2001). A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Perceptions of Classroom Interactions. In L. M. Rudner (Chair),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AERA)*, Seattle, WA.
- OECD(2020). A framework to guide an educatio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of 2020. Paris: OECD Publishing.
- O'hare, M. M., & Tamburri, E. (1986). Coping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 between anxie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3), 255.



- Pianta, R. C. (1999). Enhancing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eacher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yan, R. M., &Deci, E. L. (2002).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An organismic-dialectical perspectiv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3-33.
- Saka, N., Gati, I., & Kelly, K. R. (2008). Emotional and Personality-Related Aspects of Career-Decision-Making Difficultie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6(4), 403-424.
- Scovel, T. (1978). The effect of affect on foreign language learning: A review of the anxiety research. *LanguageLearning*, 28, 128-142.
- Spielberger, C. (1972). Experimental approaches to test anxiety; Attention and the uses of information. In C. D. Spielberger(Ed.),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2), N. Y: Academic press
- Spielberger, C. D. (1975). *Anxiety: State-trait-process*. New York: Wiley.
- Spielberger, C. D., Gorsuch, R., L., &Lushene, R., E., (1970).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
- Strijbos, J.-W., &Stahl, G. (2007). Methodological Issues in Developing a Multi-Dimensional Coding Procedure for Small-Group Chat Communication. *Learning and Instruction*, 17, 394-404.

- Super, D. E. (1984). *Career and life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7).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5th ed.). Allyn & Bacon. Pearson Education.
- Taylor, J. A. (1953). A personality scale of manifest anxiety.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8*(2), 285-290.
- Tyler, L. L. (1964). The conception of an ideal teacher-student relationship.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8*(3), 112-117.
- Zwemer, W. A., & Deffenbacher, J. L. (1984). Irrational beliefs, anger, and anxie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3), 391-393.



[부록 1] 본조사용 설문지

##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준비행동에 관한 설문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자신의 진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통계법 제 13조 2항에 따라 익명으로 처리되며,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될 것입니다.

각 질문에는 맞거나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약 15분입니다.

또한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응답지는 연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문항이라도 빠짐없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응답은 이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신 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이해정 드림  
지도교수 김진모

설문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I. 다음은 여러분이 어떻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 ↔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나의 취업에 대해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맞는 직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취미, 특기, 소질과 관련지어 취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취업과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성적을 체크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친구들과 나의 미래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취업을 위해 회사의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직업에 대해 여러가지 정보(방법, 보수, 전망)를 알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과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적성과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업과 관련한 책, 전문 서적, 잡지 등을 구입해 읽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교재, 참고서적, 필요한 기기 등을 이용하여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취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지, 팸플릿 등을 모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직업과 관련된 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직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직업 분야를 직접 체험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취업에 관련된 상담을 위하여 상담 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직업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취업 관련 행사나 온라인 박람회, 설명회 등에 참석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취업을 위해 관련된 대회 공모전 등을 준비한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취업을 위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취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점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II. 다음은 여러분의 마음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 ↔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마음이 차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마음이 든든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후회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5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6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7	앞으로 불행이 있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마음이 놓인다.	①	②	③	④	⑤
9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편안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1	자신감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짜증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3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①	②	③	④	⑤
14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 마음은 긴장이 풀려 포근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7	뭔가 걱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흥분되어 어쩔 줄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9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20	기분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선생님의 관한 문항입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의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는 정도에 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 ↔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선생님은 우리의 감정을 잘 이해해 주신다	②	③	④	⑤	⑤
2	선생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3	선생님은 우리의 행동을 잘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선생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잘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선생님은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잘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은 우리의 생각을 인정해 주시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7	선생님은 우리에게 애정을 갖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⑤
8	선생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잘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9	선생님은 함께 지내고 싶은 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선생님은 우리에게 자상하시다.	①	②	③	④	⑤
11	선생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믿음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13	선생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선생님은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⑤
15	선생님은 우리를 한 인격체로서 대등하게 대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16	선생님은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줍니다.	①	②	③	④	⑤
17	선생님은 부당하게 권위를 내세우시는 분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18	선생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잘 설명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19	선생님은 우리가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20	선생님은 학생들의 질문에 시원하게 답해줍니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은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①	②	③	④	⑤

IV. 전문교과 원격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가장 적합한 답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가 생각할 때	아니다 ↔ 그렇다				
1	원격수업 선생님은 수업안내정보 (수업방법, 운영일정 등)를 자세하게 제공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원격수업 선생님은 학생에게 자주 학습에 대한 의견 및 질문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원격수업 선생님은 학생의 질문에 적절한 답변과 설명을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4	원격수업 선생님은 학습독려문자, 이메일 등으로 학습관리를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⑤
5	원격수업으로 학습하는 콘텐츠의 1차시 분량은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원격수업으로 학습하는 내용은 이해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7	원격수업으로 학습하는 내용은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원격수업의 실습은 대면 실습 수업과 유사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원격수업플랫폼(EBS온라인클래스, 밴드, 줌 등)은 이용하기 쉽다.	①	②	③	④	⑤
10	원격수업플랫폼(EBS온라인클래스, 밴드, 줌 등)에 불편함 없이 접속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원격수업플랫폼(EBS온라인클래스, 밴드, 줌 등)은 선생님께 학습내용과 방법을 질문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원격수업을 통해 학습하는 것은 나에게 가치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원격수업을 통해 나의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원격수업을 통해 공부한 전공 과목에 대한 기본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원격수업을 통해 공부한 내용이 직무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문항입니다.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정도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은 몇 학년입니까?**

- ① 2학년                      ② 3학년

**2. 여러분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3. 여러분의 학교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① 수도권                      ② 비수도권

**4. 여러분의 학교 계열은 무엇입니까?**

- ① 공업계열  
② 상업계열  
③ 농업계열  
④ 수산·해양계열  
⑤ 가사·실업계열

**5. 아버지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6.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7. 부모님의 수입을 모두 합해 가정의 한 달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300만원 미만
- ② 300~400만원 미만
- ③ 400~500만원 미만
- ④ 500~600만원 미만
- ⑤ 600만원 이상

— 긴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xiet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Online Class Satisfaction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Lee, Hye Jeong

*Dissertation for the Master of Philosophy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2022*

Major Advisor: Kim, Jin-Mo, Ph. 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xiet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online class satisfaction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To satisfy the research goal, the specific research objectives we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 effect of anxiet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online class satisfaction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as explored. Second, the mediating effect of online class satisfaction in relationship

between anxiet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was examined.

The target population for this study was the entire students in domestic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2nd– and 3rd–grade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online learning for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30 schools were selected of the whole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by region and department, and 600 students were selected as the sample group.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1, 2021 to November 15, 2021 via mail and face–to–face survey. A total of 580 responses from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were collected, of which 554 responses were analyzed after removing careless responses. As the research instrument, the survey consists of 86 questions, among which were 23 item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20 items on anxiety, 21 items on teacher–student relationship, 15 items on online class satisfaction, 3 items asking about parental educational background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4 items on general characteristics. Moreover,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was used as a single scale by assigning scores to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fathers and mothers, and to the monthly income of the household, standardizing them, and adding them together. As for the research instrument, face validity was confirmed from 3 teachers of specialized high schools.

F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difference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level of perceptions on each variable,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utilized. Furthermore, the analysis of correlation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among the variables. In order to identify the direct effect of the independent variable on the 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mediating effect, Hayes (2013)' s PROCESS macro model 4 was adopted. All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at .05.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anxiety had no relationship with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p > .05$ ).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had a relationship with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beta = .081$ ,  $p < .05$ ).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beta = .154$ ,  $p < .001$ ). Online class satisfaction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beta = .281$ ,  $p < .001$ ). Second, anxiety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had a full mediating effect through online class satisfaction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 $-.0474$ ). Additionall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0113), teacher-student relationship (.1053) turned out to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via online class satisfaction.

Drawing upon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concluding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anxiety does not directly affec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t has a full mediating effect that negatively affec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online class satisfaction.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studen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psychological support to reduce anxiety should be prepared.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y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that affects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rough online class satisfaction. This result demonstrates that the more the students feel close to the teacher, the more reliable and competent they are, the more active their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s. Between anxiet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online class satisfaction, online class satisfaction has the biggest explanation. And although anxiety does not directly affec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t h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online class satisfaction. The importance of online learning is growing, especially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This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to increase students' satisfaction by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online classes.

Th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online class satisfaction. The variables that affect online class satisfaction such as individual motivation and immersion, design, and execution of online classes need to be dealt with in a different dimension from the general variables of class satisfaction. Second, the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 in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not only difficult to overcome through individual efforts of parents or children, but also devalues the importance of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s. In

addition, as the economic support for low-income students has been strengthened as online class has become a universal clas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o broader family variables such as parental support in future researches. Third, it is important to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 in satisfaction between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classes for the same class.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and Meister high school students who have advanced online class by making the curriculum flexible.

Moreover, the implications for the field are as follows; First, as this study confirmed the effect of online class satisfaction of student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t is necessary to mak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efforts to enhance the sense of reality of online practice classes. Second, an online learning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d. For example, the proper equipment such as the functioning computers and the Internet should be provided in addition to digital literacy education. Third, although anxiety did not directly affect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it was confirmed that it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online class satisfact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motional stability of students is more important in the online learning situation.

---

**Key Wor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Anxiety,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Teacher-Student Relationship, Online Class Satisfactio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tudent Number: 2016-28116**



